

# 2020 경제 및 산업 전망



# 2020 경제 및 산업 전망 Contents



I. 경제부문	.....	3
II. 산업부문	.....	27
III. 중소기업	.....	69

# I. 경제부문

1. 세계경제
2. 국내경제
3. 금융시장

# 1. 세계경제

- (현황) 경기둔화 → (전망) 금리인하·재정확대 등으로 대응

# 1. 세계경제 [총괄]

##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지속으로, 글로벌 경제 BIG4 동반부진 예상

### 각국은 금리인하, 양적완화,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경기침체 우려에 선제적 대응

- (미국) 경기둔화 국면에 진입, 연준은 기준금리 추가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 추진 예상
- (중국) 경기둔화 우려에 대응해 기준금리 추가인하, 인프라투자 통한 재정지출 확대 등 다양한 부양책 예상
- (유로) ECB는 양적완화 재개 확정 및 각 회원국에 재정지출 촉구, 낮은 경제성장률 지속되나 소폭 회복
- (일본) 소비부진 및 엔화강세가 심화時 현재 마이너스인 단기정책금리 추가인하 가능성

## BIG4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금융불안 완화 등으로 신흥국이 세계경제 성장에 기여

- (아세안5+인도) 내치 안정을 기반으로, 정부가 통화완화 및 투자확대를 추진하여 꾸준한 성장 기대
- ※ 루비니 교수의 글로벌 경제 3대 치킨게임(매경 세계지식포럼, '19.9월): ①美中 무역분쟁 ②美·이란 지정학적 갈등 ③브렉시트

### < 경제성장률 및 경기판단 >

(% )	경제성장률(IMF)			'20년 경기판단(IBK경제연구소)
	'18년	'19년 <sup>(e)</sup>	'20년 <sup>(e)</sup>	
세 계	3.6	3.0	3.4	성장세 부진
미 국	2.9	2.4	2.1	성장세 둔화 : 소비 및 투자 부진
중 국	6.6	6.1	5.8	성장세 둔화 : 소비둔화 및 수출부진
유로존	1.9	1.2	1.4	소폭 회복 : 1% 초중반대 저성장은 지속
일 본	0.8	0.9	0.5	성장세 둔화 : 투자 및 수출 부진
아세안5	5.2	4.8	4.9	성장세 지속 : 中 경기둔화로 수출은 부진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19.10)

# 1. 세계경제 - 미국 [현황]

## 2019년 미국경기는 사상 최장의 확장국면\*을 이어가며 완만한 성장세를 실현

\* 美경기확장기(순위, 개월, 전미경제연구소(NBER)) : ①'09.6~'19.7(121개월째) ②'91.3~'01.3(120) ③'61.2~'69.12(106) ④'82.11~'90.7(92)

- 고용호조, 높은 임금 상승률 등이 소비확대로 이어지며 경제성장을 견인
- 美中 무역분쟁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기업투자 및 수출은 부진

※ 소매판매(전년동기대비, %) : 4.6('17) → 4.8('18) → 3.4('19.1~9월) / 투자(전년동기대비, %) : 4.2('17) → 4.6('18) → 2.9('19.Q1) → 1.4(Q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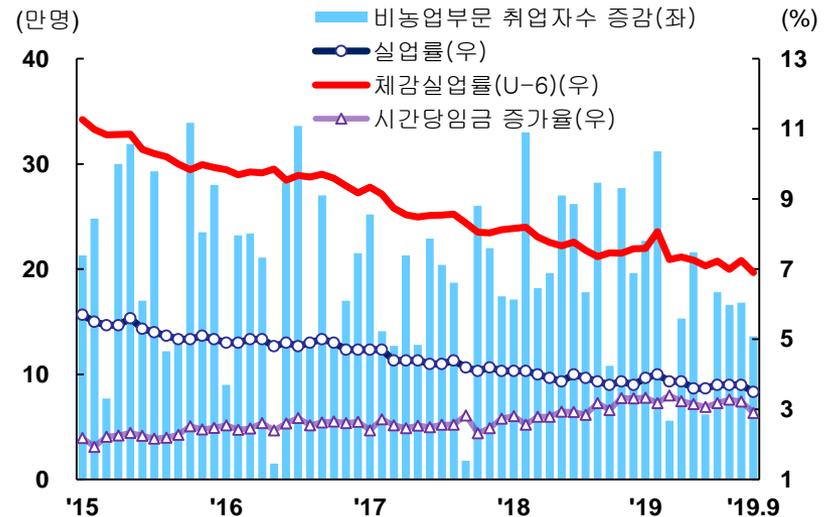
- 기준금리는 당초 인상(4회)이 예상됐으나, 경기확장세 지속을 위해 2회 연속 인하(7월·9월, 각 25bp) → 美경기요인보다는 대외요인에 기인 : ①유로존·중국 등 글로벌 경기둔화세 ②무역정책 불확실성 증대 등

### < 경제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BEA

### < 취업자수 증감 및 실업률 >



주 : 체감실업률=(실업자수+한계근로자수+경제적 이유에 의한 파트타임 근로자수)/(경제활동인구+한계근로자수) x 100, 자료 : BLS

# 1. 세계경제 - 미국 [전망]

## 경기사이클상 둔화기 진입, 대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성장세 둔화

- 지속적인 제조업 부진은 기업투자 및 고용악화로 이어져 소비위축 우려되나,

※ 제조업 생산(전년동기대비, %) : 2.4('18.Q1) → 2.2(Q2) → 3.6(Q3) → 2.5(Q4) → 1.6('19.Q1) → 0.2(Q2) → △0.5(Q3)

제조업 근로시간(전년동기대비, 주간기준, %) : 0.2('17) → 0.2('18) → △0.4('19.Q1) → △0.7(Q2) → △1.2(Q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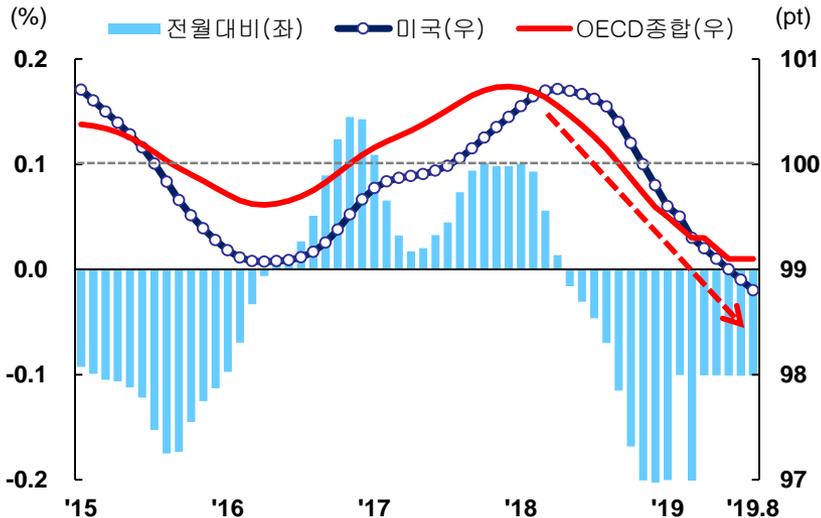
ISM제조업지수(기준=50, pt) : 49.6('16.8) ⇒ 57.4('17년 월평균) → 58.8('18년 월평균) → 56.6('19.1) ⇒ 55.3(3) ⇒ 52.1(5) ⇒ 49.1(8) → 47.8(9)

- 다만, 대선('20.11월)前 경기부양책\*은 이를 상쇄

\* 美정부는 법인세 감세(21 → 15%), 급여세 인하(6.2 → 4.2%), 중산층(4.5~13.5만달러) 소득세 인하 방안 등을 검토중

- 완화적 통화정책은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안정화는 가능하나 전반적 경기회복에는 역부족

< OECD경기선행지수 >



주 : 기준=100, 전월대비는 미국기준, 자료 : OECD

< 주요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 >

(%)	'19년(e)	'20년(e)	전망시점
IMF	2.4	2.1	'19.10월
OECD	2.4	2.0	'19.9월
World Bank	2.5	1.7	'19.6월
FRB*	2.2	2.0	'19.9월

주 : \* FOMC위원들의 전망치 중간값, 자료 : 각 발표기관

# 1. 세계경제 - 미국 [이슈] : 2020년 제로금리 회귀와 QE4의 가능성?

(제로금리 가능성 中) 이미 2차례 선제적 기준금리 인하, 경기방어를 위한 주요국의 정책 대응, 중국 경착륙 우려 완화 등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약 1~2회로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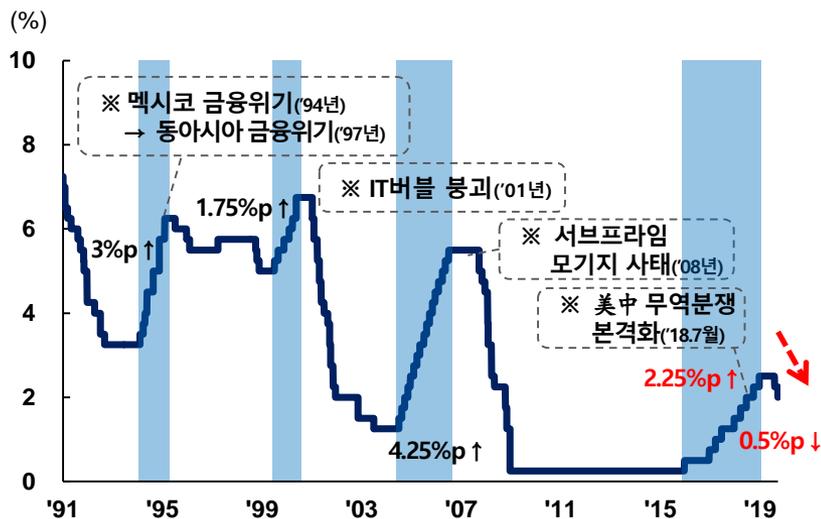
- 다만, '20.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의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下 경기둔화 지속, 보호무역 격화 등이 겹칠 경우 0%대 기준금리시대 도래 가능성 ※ 일부 해외B는 보호무역 격화時 '20년 제로금리 가능성 제기中

(대규모 QE 가능성 低) 글로벌 통화정책 공조 및 경기부양 위한 소규모 양적완화 재개는 가능

※ (ECB) 양적완화 종료후 11개월만에 무기한 양적완화(月 200억유로) 재개 결정, 예금금리 0.1%p 추가인하 결정('19.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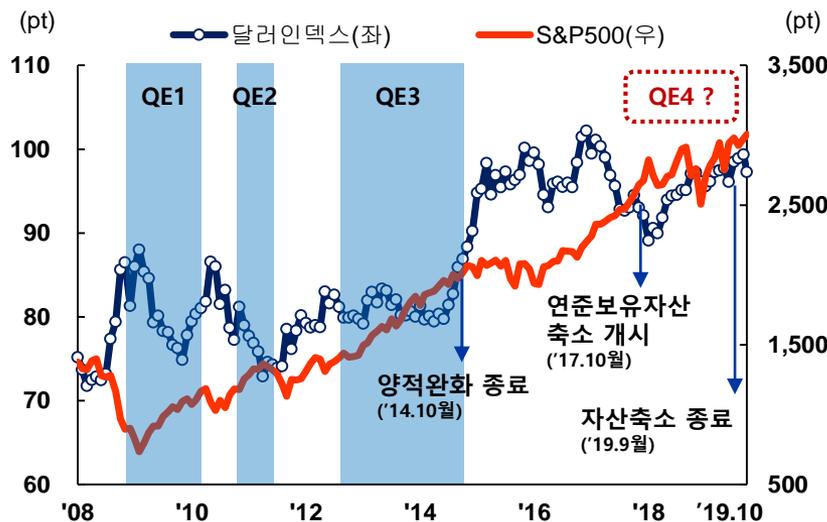
- 트럼프의 대선('20.11월)前 달러약세 유도, 증시부양 의지 등 유동성 공급의지는 확대되나, 기준금리 인하여력이 있어 대규모 양적완화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단, 보호무역 기조下, 대규모든 소규모든 양적완화의 효과성 여부는 불투명

< 미국 기준금리 >



주 : 기준금리는 상한기준('19.10.22일기준), 음영은 기준금리 인상기  
자료 : FRB

< 양적완화 기간중 달러 및 주가 지수 >



주 : '19.10.22일기준, 음영은 양적완화기, QE1('08.12~'10.3), QE2('10.11~'11.6), QE3('12.9~'14.10), 자료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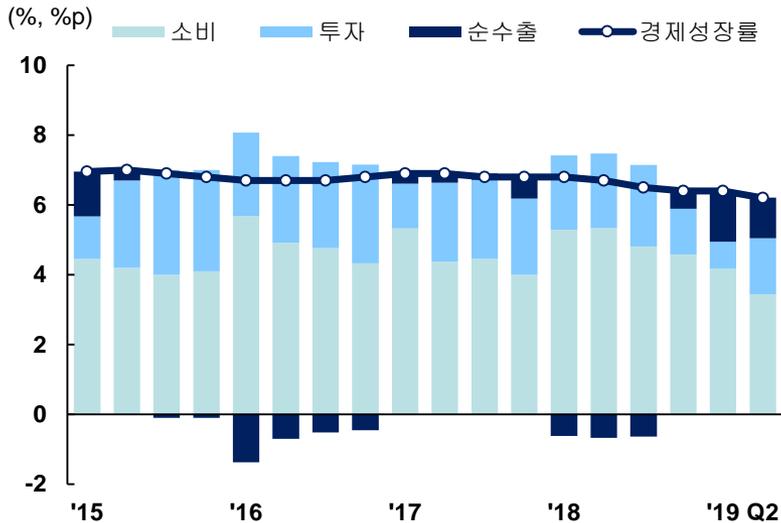
# 1. 세계경제 - 중국 [현황]

## 美中 무역분쟁 지속 등 대외여건 악화에도, 소비의 뒷받침으로 6%대 성장

- 다만, 소비 증가율\*은 고용둔화, 배기가스 배출규제 강화에 따른 자동차 판매부진\*\* 등으로 하락  
 \* 소매판매(전년동기대비, %) : 10.2('17) → 9.0('18) → 8.2('19.1~9)    \*\* 자동차 소비(전년동기대비, %) : 5.6('17) → △2.4('18) → △0.7('19.1~9)
- 투자\*는 인프라투자\*\*가 개선됐지만, 기업이익 부진으로 설비투자\*\*\*가 역대 최장기간 감소하며 둔화세  
 \* 고정자산투자(전년동기대비, %) : 5.9('18) → 5.4('19.1~9)    \*\* 인프라투자 : 3.8('18) → 4.5('19.1~9)    \*\*\* 설비투자 : 2.6('18) → △1.2('19.1~9)
- 수출\*도美中 무역분쟁 지속으로 부진했으나, 수입\*\*이 줄어 순수출 성장기여도는 플러스를 기록  
 \* 수출(전년동기대비, %) : 7.9('17) → 9.9('18) → △0.1('19.1~9)    \*\* 수입(전년동기대비, %) : 15.9('17) → 15.8('18) → △5.0('19.1~9)

## 최근 홍콩시위, 미국의 中환율조작국 지정 및 관세인상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 확대

< 경제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국가통계국

< 설비투자 및 기업이익 >



주 : 전년동기대비 누적 증가율, 자료 : 국가통계국

# 1. 세계경제 - 중국 [전망]

## 기업부채관리 정책과 美中 무역분쟁 지속 등으로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

- 소비는 고용악화, 물가상승\*(돈육가격 인상 등) 등이 처분가능소득\*\* 증가를 제한해 둔화
  -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대비, %) : 1.8('17) → 1.9('18) → 3.0('19.9)    \*\* 처분가능소득(실질, 전년동기대비, %) : 7.3('17) → 6.5('18) → 6.1('19.1~9)
- 수출도 對미국수출\* 감소 영향으로 둔화세가 지속, 美中 무역협상 전개양상에 따른 변동성은 확대
  - \* 對미국수출(전년동기대비, %) : 11.3('17) → 10.8('18) → △11.0('19.1~9)
- 투자는 인민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에도 저조한 투자심리로 설비투자 회복은 제한적
  - \* 기준금리로 LPR(Loan Prime Rate) 사용, 기준금리 인하('19년: ①8월, 10bp ↓ ②9월, 5bp ↓), 지급준비율 인하('19년: ①1월, 2회, 총 100bp ↓ ②8월, 1회, 50b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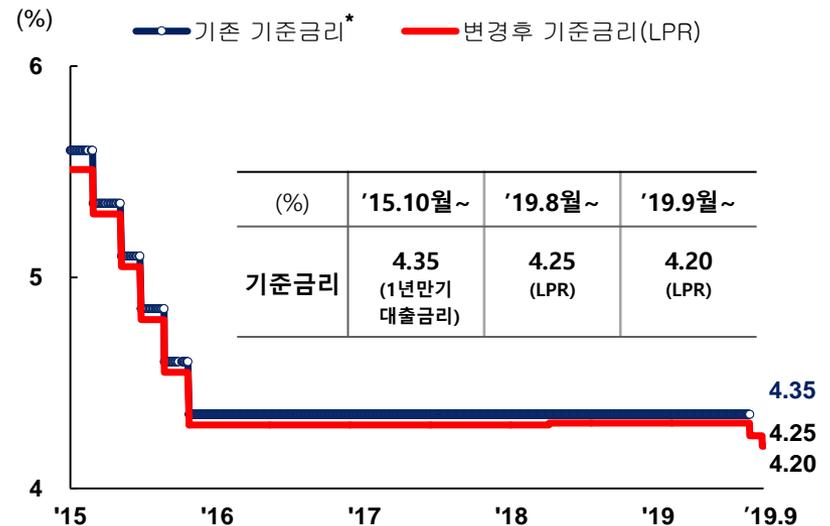
## 다만,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국경절(건국 70주년) 이후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등이 둔화폭을 축소

### < 주요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 >

(%)	'19년 <sup>(e)</sup>	'20년 <sup>(e)</sup>	전망시점
IMF	6.1	5.8	'19.10월
OECD	6.1	5.7	'19.9월
World Bank	6.2	6.1	'19.6월
ADB	6.2	6.0	'19.9월

자료 : 각 발표기관

### < 기준금리(LPR, Loan Prime Rate) >



\* 1년만기 대출금리, 자료 : 인민은행

# 1. 세계경제 - 중국 [이슈] : 바오리우(保六, 성장률 6%대 수성) 무너질까?

美中 무역분쟁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 현재 중국정부는 수출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내수(소비, 투자)부양책을 추진했으나, 효과는 미흡

2020년 '바오리우(保六)' 달성여부는 ①美中 무역협상 ②추가적 경기부양책 효과 등에 좌우

**Good**

→ 한국경제 :



- 美中 무역협상 진전

'20.11월 대선前 가시적 경제성과 필요

경기부양을 위해 美의 요구\* 수용

\* 위안화 환율 절상, 美농산물 수입 등

- 추가적 경기부양책 효과大

①인프라예산↑ ②유동성 공급↑  
→ 생산·소비·투자 개선

한국경제 :



←

**B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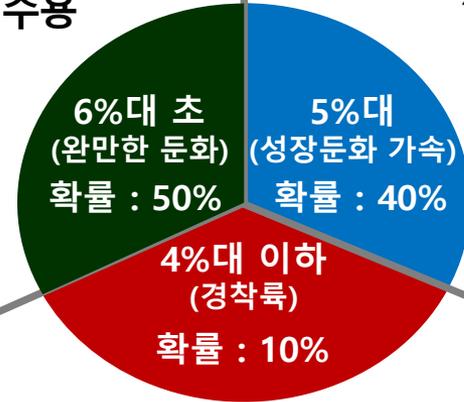
- 美中 무역협상 교착 지속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 난항

\*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기업보조금 중단 등

- 추가적 경기부양책 효과小

생산·소비·투자 둔화세 지속



**Worst**



한국경제 :



- 美中 무역협상 결렬 및 분쟁 격화

트럼프는 中제재 강화정책 추진이 표심결집에 유리하다고 판단

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해 보복제재

- 정부정책 신뢰약화, 중국發 경제위기 현실화 우려

# 1. 세계경제 - 유로존 [전망]

## (양적완화) 매월 200억유로('19.11월~) 규모의 무기한 유동성 공급 재개로 경기회복 기대

- 단, '실업률 개선 정체 →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가 양적완화의 경기부양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 있음
  - ※ 양적완화 경과(억유로) : 600('15.3~'16.2) → 800('16.3~'17.3) → 600('17.4~'12) → 300('18.1~'9) → 150('18.10~'12, 누계 2.6조유로)
  - ※ 실업률(%) : 9.1('17) → 8.2('18) → 7.7('19(e)) → 7.5('20(e)) → 7.3('21(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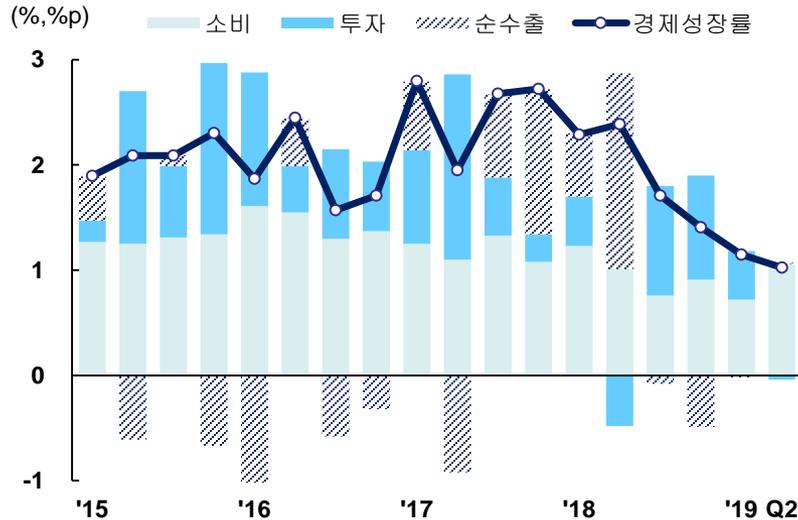
## (독일경제) 무역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교역감소로 부진, 주요 수출중심국\*의 공통적 현상

\*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 : 독일 2.5('18.Q2) → 0.0('19.Q2), 싱가포르 4.2 → 0.1, 대만 3.3 → 2.4, 멕시코 1.6 → 0.4, 한국 2.9 → 2.0

## (정치이슈) 브렉시트, 美·EU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의 현실화 가능성은 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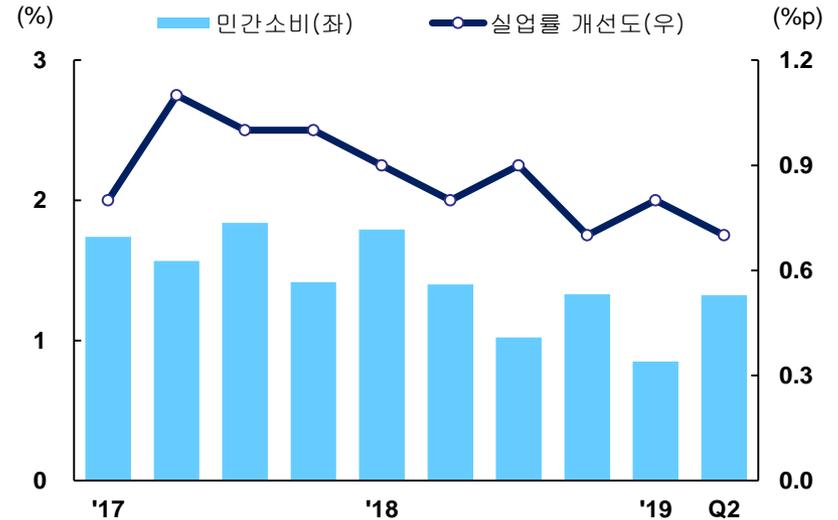
- 對미국 무역협상은 '독일(車수출 위해 적극협상) vs 프랑스(농산물 개방반대)'의 EU내 갈등으로 원만한 합의 요원

< 경제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Eurostat

< 실업률 개선도 및 민간소비 >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Eurostat

# 1. 세계경제 - 일본 [전망]

## (소비세 인상) 일시적 소비침체에도 정부지출 등으로 소비 증가세 유지

- 양호한 고용 상황,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책, 도쿄올림픽(7.24~8.9일) 관련 수요로 충격 완화
- ※ 소매판매(전년동기대비, %) : 2.0('17.Q3) → 1.9(Q4) → 1.4('18.Q1) → 1.3(Q2) → 2.2(Q3) → 2.0(Q4) → 0.7('19.Q1) → 0.7(Q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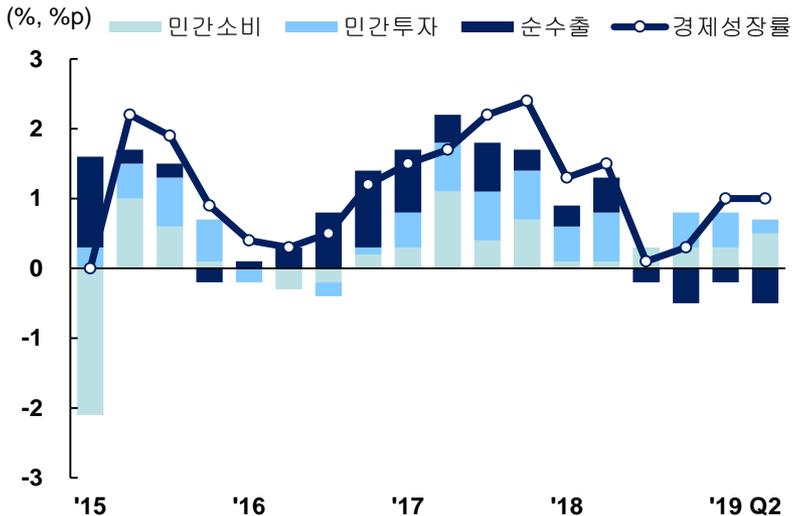
## (글로벌 경기둔화) 중국 등 글로벌 경기 하방압력으로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 예상

- 美中 무역분쟁, 對한국 수출규제 등 불확실성 증가는 기업설비투자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
- ※ 수출(전년동기대비, %) : △8.4('19.1) → △1.2(2) → △2.4(3) → △2.4(4) → △7.8(5) → △6.6(6) → △1.5(7) → △8.2(8) → △5.2(9)

## (통화정책) 정책여력은 제한적이거나, 추가 완화정책으로 경제성장률 둔화 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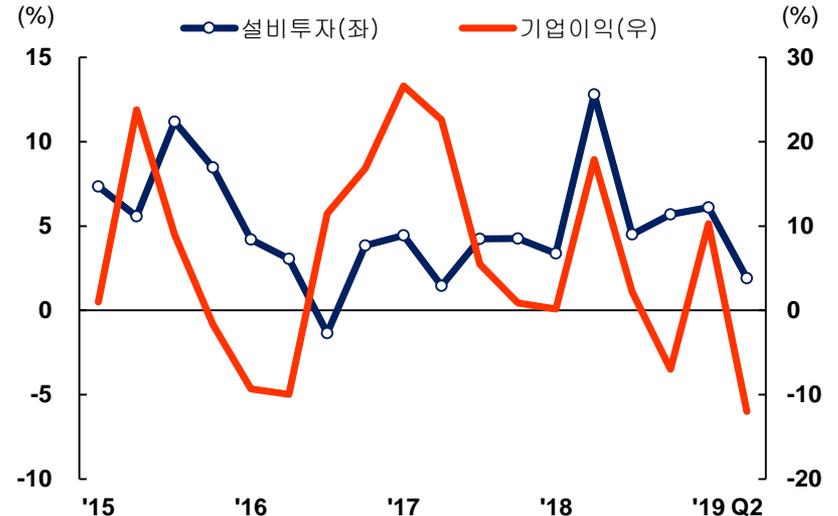
- 급격한 소비부진, 엔화강세 심화,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時 단기정책금리 인하 등 시행
-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대비, %) : 0.6('17.Q3) → 0.6(Q4) → 1.3('18.Q1) → 0.7(Q2) → 1.1(Q3) → 0.8(Q4) → 0.3('19.Q1) → 0.8(Q2)

< 경제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



주 : 전년동기대비, 민간투자는 재고투자제외, 자료 : 내각부

< 설비투자 및 기업이익 >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재무성

# 1. 세계경제 - 新남방 : 아세안5+인도 [전망]

## (아세안5) 소비와 투자 중심의 성장세 예상되나, 중국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부진은 하방리스크

- 안정적인 물가와 통화완화 기조로 민간소비가 양호, 각국의 성장드라이브 정책으로 투자확대 예상
- 높은 對중국 무역의존도로('18년 對중국 수출비중 : 14.4% 수입비중 : 23.2%) 중국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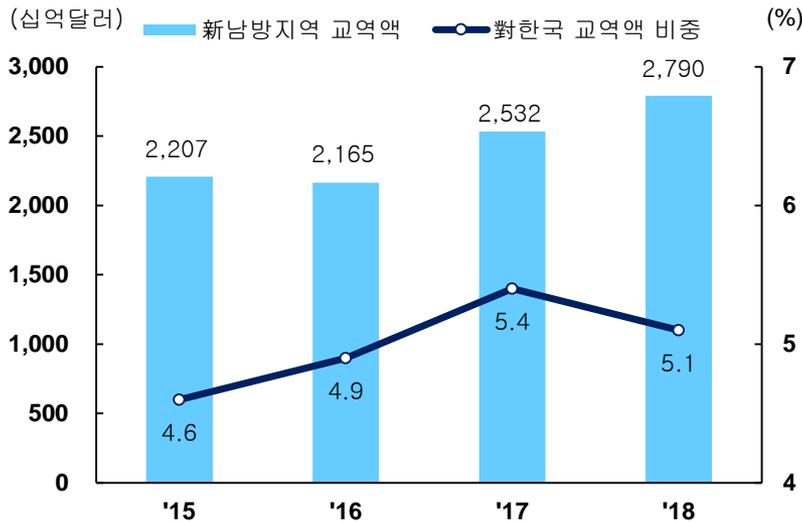
## (인도) 정책 불확실성 완화, 통화완화 정책 등으로 양호한 성장세 기대

- 모디정부의 재집권으로 '기업투자 환경 개선, 인프라 확충, 재정적자 감축' 등 기존 정책이 지속
- '19년 기준금리 인하(4회, '19.9월 5.4%)에도, 여전히 저물가가 지속되어 향후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 (新남방정책) 韓·아세안 교역규모 확대와 아세안 진출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20년 교역규모 확대 추진(1,600('18) → 2,000억달러('20)), 아세안에 '韓·아시아 금융협력센터' 설립 계획(新남방위원회, '19.9월)

### < 新남방지역 교역 >



주 : 新남방지역은 아세안5+인도, 자료 : Bloomberg

### < 新남방지역 경제성장률 전망 >

		(십억달러, %)	'18년	'19년(e)	'20년(e)
아 세 안 5	인도네시아 (1,023)	경제성장률	5.2	5.1	5.2
		물가	3.2	3.2	3.3
	말레이시아 (354)	경제성장률	4.7	4.5	4.7
		물가	1.0	1.0	2.0
	필리핀 (331)	경제성장률	6.2	6.0	6.2
		물가	5.2	2.6	3.0
	태국 (487)	경제성장률	4.1	3.0	3.2
		물가	1.1	1.0	1.0
	베트남 (241)	경제성장률	7.1	6.8	6.7
		물가	3.5	3.0	3.5
인도 (2,717)		경제성장률	6.8	6.5	7.2
		물가	3.4	3.5	4.0

주 : ( )는 명목GDP('18년기준), 경제성장률은 실질기준, 전년대비  
자료 : ADB, IMF

# 1. 세계경제 - 新북방 : 러시아, 중앙아시아 [전망]

## (러시아) 對러시아제재 지속, 유가하락 등으로 성장이 부진하나 통화정책 등으로 경기부양 전망

- '19년에 3차례 금리 인하(7.75('19.1) → 7.00%(9))를 통해 민간소비 및 투자를 견인하여 성장 유도
- 석유·가스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재정수입의 50%, 수출의 65%)로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리스크 존재
-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로 대표되는 新동방정책 추진으로 아태지역 국가들과 포괄적인 경제협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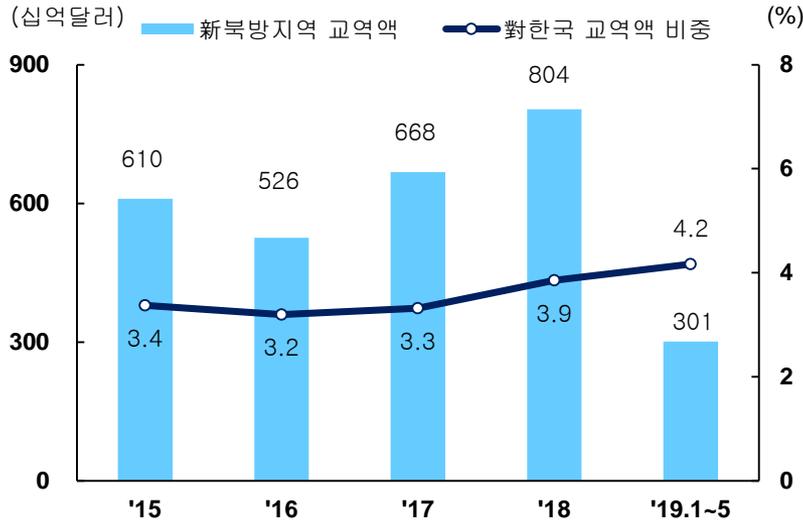
## (중앙아시아) 가스, 석유, 원자재 등 풍부한 자원에 대한 투자증가로 완만한 성장세 예상

- 중앙아시아 지역의 자원개발을 위한 플랜트투자, 인프라 건설투자를 기반으로 성장 전망
- 수출은 자원개발 투자로 증가가 예상되나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중국 및 러시아 경기에 따라 변동 가능성

## (新북방정책) 북방경제협력의 외연확대를 통해 新성장동력 확보 추진

- 한·러 수교 30주년, 중앙아시아 경제협력 순방성과 등으로 한국과 북방지역 간 전략적 협력 강화 전망

< 新북방지역 교역 >



주 : 新북방지역은 러시아('15~'19.5), 카자흐스탄('15~'19.5), 우즈베키스탄('15~'18)을 포함, 자료 : Bloomberg

< 新북방지역 경제성장률 전망 >

		(억달러, %)		'18년	'19년(e)	'20년(e)
러시아 (16,575)	경제성장률			2.3	1.1	1.9
	물가			2.9	4.7	3.5
카자흐스탄 (1,729)	경제성장률			4.1	3.8	3.9
	물가			6.0	5.3	5.2
우즈베키스탄 (504)	경제성장률			5.1	5.5	6.0
	물가			17.5	14.7	14.1
투르크메니스탄 (441)	경제성장률			6.2	6.3	6.0
	물가			13.2	13.4	13.0
키르기스 공화국 (80)	경제성장률			3.5	3.8	3.4
	물가			1.5	1.3	5.0
타지키스탄 (75)	경제성장률			7.3	5.0	4.5
	물가			3.8	7.4	7.1

주 : ( )는 명목GDP('18년기준), 경제성장률은 실질기준, 전년대비  
자료 : IMF('19.10)

# 1. 세계경제 - 평화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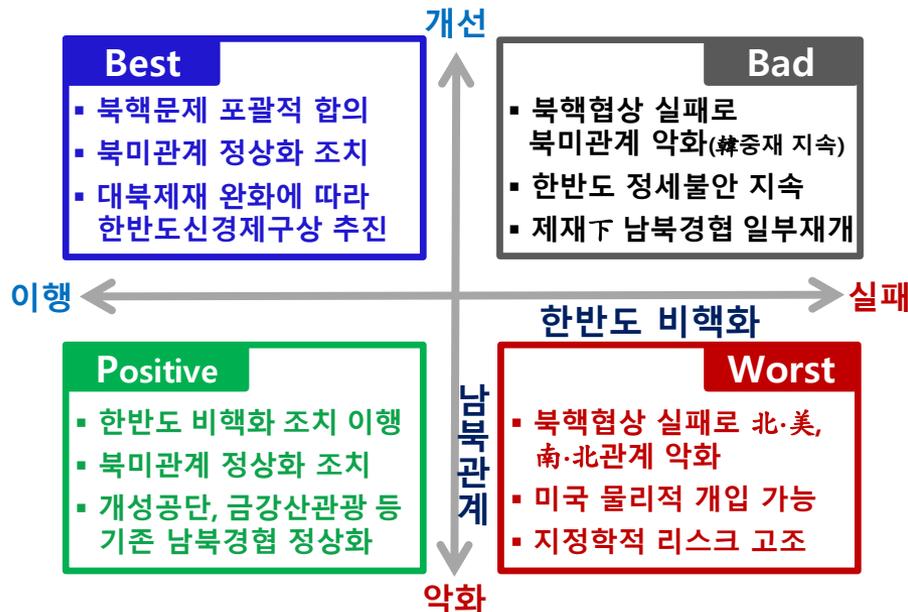
## (현황) 북미간 북한 비핵화(美)와 체제보장(경제발전, 北)에 대한 협상 진행중이나, 의견차 여전

- 한미정상은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 종식, 전쟁불용, 한반도 공동번영의 미래 비전 제시(9.23일)
- 북한은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19년 연말까지 실질적인 협상 성과 도출 강조
-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의 대외무역이 급속히 악화(무역총액 증가율(%) : 4('16) → △15('17) → △49('18))됨에 따라, 경제위기(경제성장률(%) : 3.9('16) → △3.5('17) → △4.1('18))가 가중되면서 타개책으로 남북경협 재개 지속 요구

## (전망) 비핵화 진전에 따라,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재개 및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 북미간 북핵협상이 타결時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단계적 재개 전망
-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을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면 접경지역 개발로 경제 활성화 기대
- ※ 현재 경기도, 강원도 등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는 내용의 여야 국회의원 제출 법안(6개)이 국회 상정 상태
- 북핵협상 실패時 한반도 주변의 안보불안이 가중될 가능성도 존재, 한국경제 충격 변수

### < 한반도 정세 변화 시나리오 >



### < 한반도 평화경제 건설 핵심정책 >

- DMZ 평화지대**
  - 비무장지대에 국제평화협력지대 건설
  - 개성-판문점을 연결하는 평화협력지구 지정
  - 휴전선 남측 접경지역 통일경제특구 개발
- 교통·물류 시스템**
  -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통·물류 가교국가 건설
  - 한반도 중심축의 동북아 철도공동체 건설
  - 북극해 항로 진출을 통한 해운시장 개척
- 초국경 협력**
  - 나선-하산-훈춘(남북중러), 신의주-단둥(남북중일) 초국경 협력지대 공동 개발
  - ICT 기반의 초국경 4차산업 플랫폼 구축
- 법·제도**
  - 한반도 평화경제 이행 위한 국내 법제 개선
  - 초국경 협력 및 디지털 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제, ICT 시스템 구축

# 1. 세계경제 - 국제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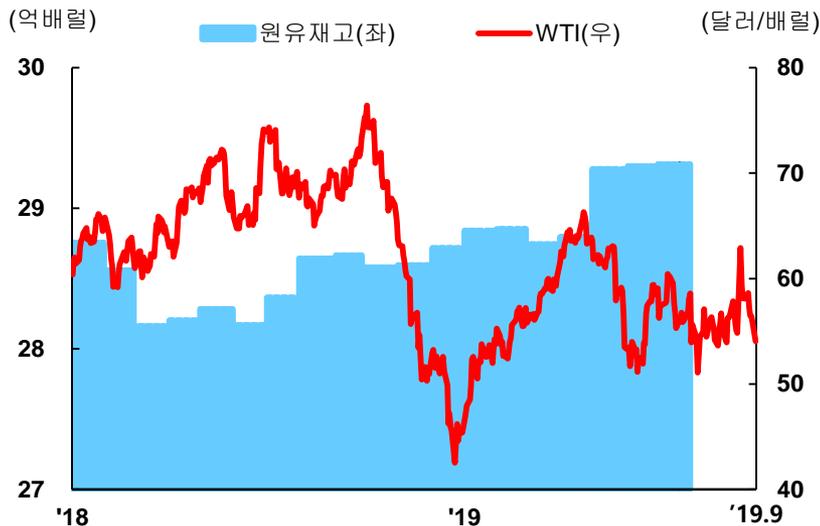
## (현황) 국제유가는 2018년 평균(65달러)보다 하락한 57달러 수준('19.1~9월 평균)

- 美中 무역분쟁 격화에 따른 원유수요 감소, 미국의 원유생산 증가로 인한 공급과잉 등이 하락요인
- 최근 국제유가는 사우디 드론 피격으로 급등했으나, 피해를 입은 석유시설 복구소식에 안정된 모습

## (전망) 전반적으로 2019년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상승 및 하락 요인의 혼재로 변동폭은 확대

- (상승요인) 미국의 對이란제재 강화, OPEC의 원유감산\*, 달러약세 가능성 등
  - \* OPEC 원유 생산량(백만배럴/일) : 37.4('18) → 36.2('19.Q1) → 35.6(Q2) → 36.0(Q3<sup>e</sup>) → 36.0(Q4<sup>e</sup>) → 35.4('20.Q1<sup>e</sup>)
- (하락요인) 미국의 원유생산 증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원유수요 감소 등
  - \* 미국 원유 생산량(백만배럴/일) : 15.5('18) → 16.6('19.Q1) → 17.2(Q2) → 17.4(Q3<sup>e</sup>) → 17.8(Q4<sup>e</sup>) → 18.1('20.Q1<sup>e</sup>)

### < 원유재고 및 국제유가 >



주 : 원유재고는 OECD기준, 자료 : Bloomberg, IEA

### < 주요기관의 국제유가 전망 >

(달러/배럴)	'19년 <sup>(e)</sup>	'20년 <sup>(e)</sup>	전망시점
IMF	61.8	57.9	'19.10월
EIA	56.3	54.4	'19.10월
에너지 경제연구원	63.9	59.6	'19.7월
평균	60.7	57.3	-

주 : IMF 전망치는 Brent, WTI, Dubai 유가의 단순평균값  
자료 : 각 발표기관

## 2. 국내경제

- (현황) 경기둔화 → (전망) 전반적인 부진 지속

## 2. 국내경제

### (현황)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8%) 이후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 기록

- 美中 무역분쟁\*, 日수출규제, 반도체 부진에 따른 수출둔화와 투자위축 영향 등으로 경기부진 지속
- \*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을 통해 추정된 결과 '19년 韓경제성장률을 0.4%p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한국은행, '19.10월)
- ※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 : 3.0('08) → 0.8('09) → 6.8('10) → 3.7('11) → 2.4('12) ⇒ 3.2('17) → 2.7('18) → 1.9('19.上)

### (전망) 기저효과로 2019년보다는 회복하겠으나, 국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전반적인 부진 예상

- 보호무역 장기화, 중국 경착륙 우려 등으로 내수 및 수출의 회복이 지연
- 특히, 日수출규제 장기화로 일부 산업에서의 생산차질 가시화 우려
- ※ ①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25% 관세부과時 '20년 韓경제성장률은 0.36%p 하락
- ② 반도체, 철강 등에서 韓수출이 5%씩 감소時 '19년, '20년 韓경제성장률은 각각 0.23%p, 0.91%p 하락

#### < 경제성장률 전망 >

(%)	'18년	'19년			'20년(e)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2.7	1.9	2.0	2.0	2.3	2.1	2.2
민간소비	2.8	2.0	2.1	2.2	2.3	2.2	2.3
건설투자	△2.4	△5.1	△2.6	△3.8	△2.6	△1.8	△2.2
설비투자	△4.3	△12.3	△0.5	△6.7	3.6	2.7	3.1
상품수출	3.5	0.5	1.7	1.1	2.0	2.1	2.0
상품수입	0.8	△2.6	1.4	△0.6	2.5	1.6	2.0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은행, IBK경제연구소

## 2. 국내경제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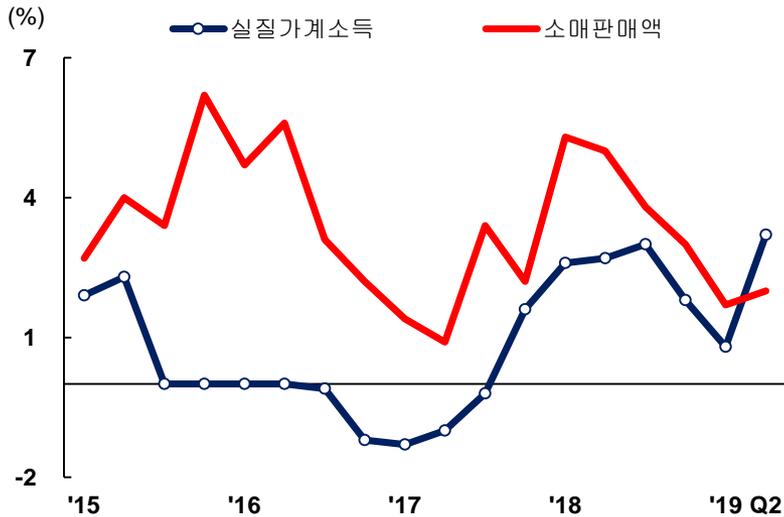
### (현황) 내구재 소비침체, 소비재 수입도 부진해 2018년보다 소비증가율이 크게 둔화

- 내구재 소비, 소비재 수입액 등이 침체되는 모습, 소비심리도 악화되어 '17년 최저 수준까지 도달
  - ※ 내구재 판매(전년동기대비, %) :  $\Delta 1.2('19.Q1) \rightarrow \Delta 0.7(Q2) \rightarrow \Delta 3.5(7) \rightarrow 0.6(8)$
- 고령층 위주의 고용개선으로 소비성향은 상승했으나, 소득 수준이 낮아 소비증가로 연결되지 못함
  - ※ 연령별 취업자수('18년  $\rightarrow$  '19.Q3, %) : 20대 1.1  $\rightarrow$  1.5, 30대  $\Delta 1.1 \rightarrow \Delta 0.3$ , 40대  $\Delta 1.7 \rightarrow \Delta 2.4$ , 50대 0.7  $\rightarrow$  1.9, 60대이상 5.7  $\rightarrow$  8.5

### (전망)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 노동시장 소폭 개선, 이자부담 완화 등으로 미약하게 회복

- 디플레이션 우려, 최저임금 상승률 둔화에 따른 소비지연 등은 부정적으로 작용
- 다만, 정부 이전지출\* 확대와 같은 정책이 소비여력 증대, 실질구매력 확대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
  - \* '20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 확대, 근로빈곤층 취업지원제도 등의 일자리·소득지원 및 사회안전망 정책 강화

#### < 실질가계소득 및 소비 >



주 : 전년동기대비, 소매판매액은 불변가격  
자료 : 통계청

#### < 소비자심리 >



자료 : 한국은행

## 2. 국내경제 [투자]

**(현황) 수출부진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中경기둔화, 日수출규제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 가계와 기업의 심리위축이 소비와 기업투자 둔화로 설비 및 건설투자 모두 부진

**(전망) 소비·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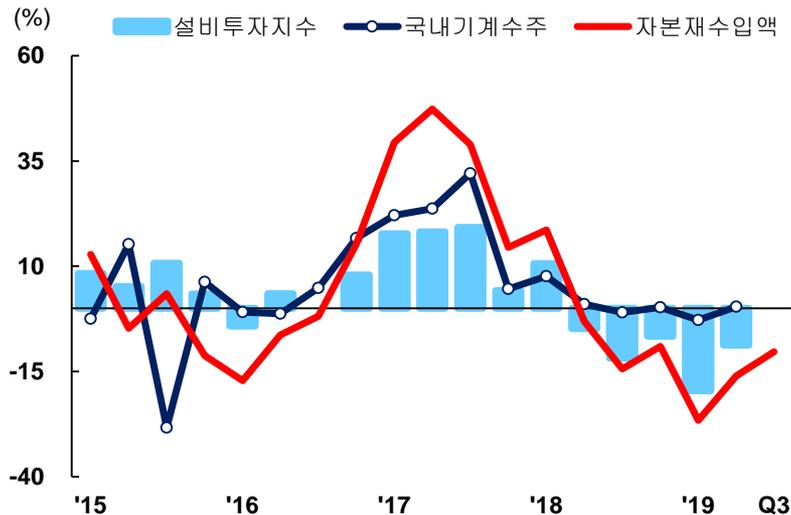
\* (소비) 노후차 교체時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추가공급 등

(투자) 대규모 민자사업 4.2조원 & 공공기관 55.0조원 투자, 민간투자 촉진세제 3중세트 입법화<sup>‡</sup>

‡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한시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확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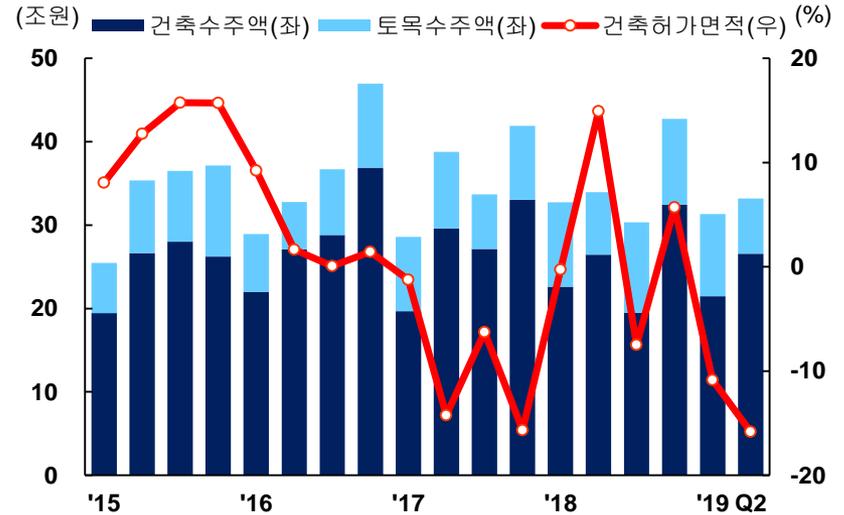
- (설비) 소재·부품·장비 부문의 정부투자, 생존을 위한 민간투자, 5G등 신기술 집중투자로 반등
- (건설) 신규수주·착공 부진, 부동산시장 규제 강화 등으로 3년 연속 감소세 지속, 다만, SOC예산 확대(19.8 → 22.3조원, 12.8%↑)는 긍정적으로 작용

### < 설비투자 및 국내기계수주 >



주 : 전년동기대비, 선박제외, 불변기준, 국내기계수주 증가율은 3개월 이동평균, 자료 :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 < 건설수주 및 건축허가면적 >



주 : 전년동기대비, 건설수주는 경상기준, 건축허가는 동수기준  
자료 : 통계청

## 2. 국내경제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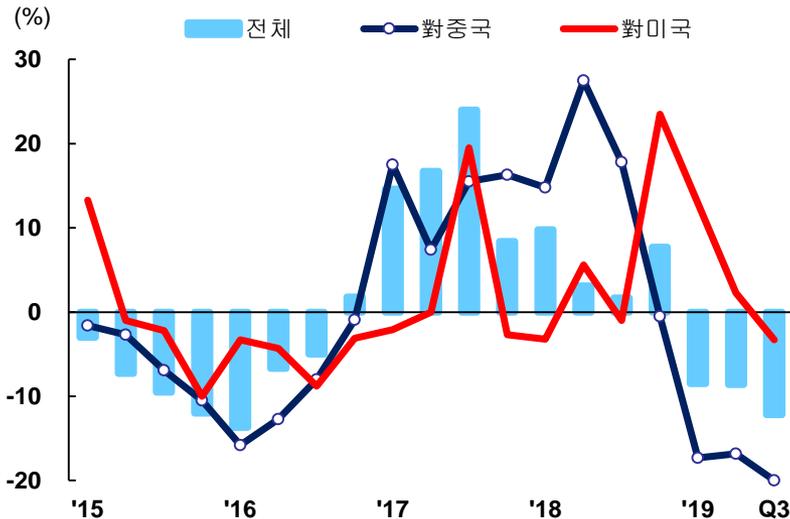
### (현황) 글로벌 제조업 경기악화, 日수출규제, 홍콩시위 장기화 등으로 마이너스 증가율 기록

- 한국의 對미국·중국 수출의존도가 명목GDP대비 14%에 달해 무역분쟁 최대피해국中 하나  
 ※ 한국의 對중국 수출품 최종도착지 : 중국 내수 75%(최종재 31%, 중간재 44%), 중국 수출 25%
- 다만, 수출물량은 이미 '19년 수준으로 회복했고 단가도 4분기에 회복될 가능성

### (전망) 반도체 업황 회복, 유가상승 등에 따른 단가 회복, 기저효과 등으로 플러스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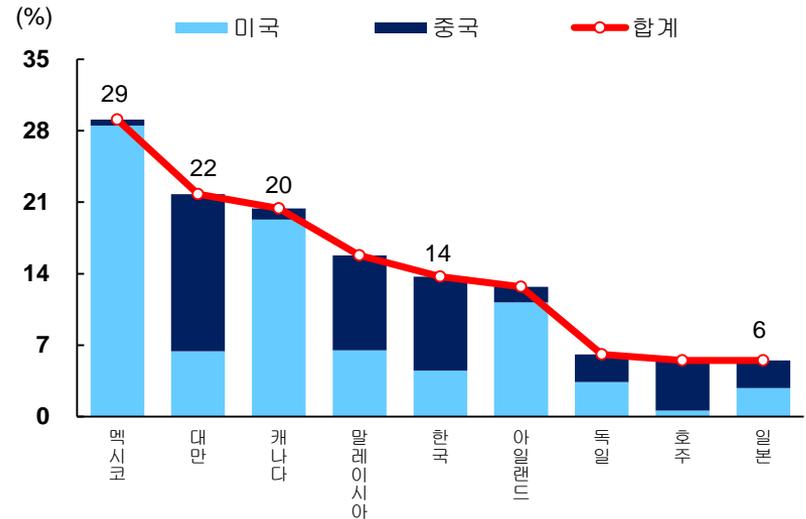
- 정부도 투자확대(375 → 526억원, 40.3% ↑)를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로 '고성장·低위험'의 수출구조로 전환, 제2의 수출도약 모색 \* 전략시장(新남방, 新북방), 신흥시장(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주력시장(중국, 일본, 미국, EU) 등으로 구분

< 수출 >



주 : 통관기준, 전년동기대비, 자료 : 관세청

< GDP대비 對미국·對중국 수출비중 >



자료 : UN Comtrade, IMF, 한국무역협회('18)

## 2. 국내경제 [정부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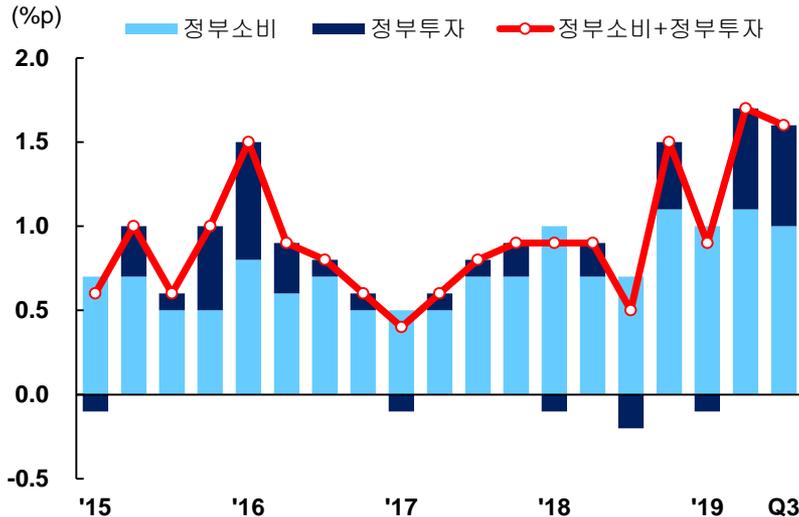
### (현황) 적극적 재정집행(3분기, 78.5%)과 추경\*(5.8조원)으로 경기하락세 방어

- 경제활력 제고와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일자리 및 SOC 분야에 집중 투자
- 다만, 확대된 재정은 고용과 복지 측면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성장률 상승효과는 제한적
- \* 규모축소와 집행지연으로 성장률 제고효과는 0.1%p 미만, '19년과 '20년 각각 0.097%p, 0.152%p 수준(국회예산정책처, '19.7월)

### (전망) 경기부양, 재정책대 정책은 소비와 투자부문을 끌어올려 성장률 제고에 긍정적

- 혁신성장과 경기부양을 위해 R&D, 산업·중소·에너지, 환경, SOC 분야 증가율을 전년보다 대폭 확대
- ※ ①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②혁신성장 가속화 ③경제활력 제고 ④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⑤생활편의·안전·건강 증진 등

#### < 정부부문의 경제성장기여도 >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은행

#### < 정부 예산(案) >

(조원)	'19년 (A)	'20년 (B)	증감 (B-A)	증가율 (%)
전 체	469.6	<b>513.5</b>	43.9	<b>9.3</b>
보건·복지·노동	161.0	181.6	20.6	12.8
교육	70.6	72.5	1.9	2.7
문화·체육·관광	7.2	8.0	0.8	11.1
환경	7.4	8.8	1.4	<b>18.9</b>
R&D	20.5	24.1	3.6	<b>17.6</b>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8.8	23.9	5.1	<b>27.1</b>
SOC	19.8	22.3	2.5	<b>12.6</b>
농림·수산·식품	20.0	21.0	1.0	5.0
기타	144.3	151.3	7.0	4.9

주 : 본예산기준, 기타는 국방,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행정 등  
자료 : 기획재정부

### 3. 금융시장

- (현황) 기준금리 인하, 환율 상승 → (전망) 최저금리, 환율 소폭 상승

### 3. 금융시장 [기준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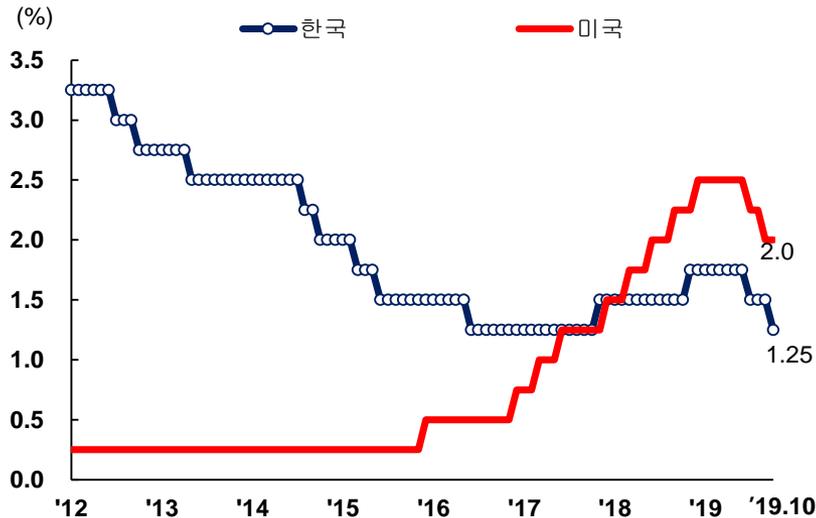
**(현황) 경기부진 및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인하(現1.25%, 7월·10월 각 25bp)**

- 경기부진下, 美中 무역분쟁 심화와 日 수출규제 등으로 10월 금리인하 이후 연내 추가인하 기대감
- 물가상승률도 한은 목표치 2%를 하회('19.9월  $\Delta 0.4%$ )하여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확대

**(전망) 경기부진과 글로벌 통화완화 기조 등을 감안하여 추가 금리인하 전망**

- 글로벌 통화완화 기조로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폭이 축소되며 한은 기준금리 인하여력이 확대  
→ 특히, 주요국의 공격적 금리인하 동반과 보호무역 심화時 0%대 기준금리도 가능
- 다만,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는 금리인하 속도를 늦추는 요인  
※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지속되어 금리인하時 가계부채 증가 우려

< 기준금리 >



주 : '19.10.17일기준, 미국은 상단기준, 자료 : 한국은행, FED

< 주요IB의 기준금리 전망 >

(% )	'19년 <sup>(e)</sup>	'20년 <sup>(e)</sup>	
		6월	12월
Goldman Sachs	1.25	1.25	1.00
Barclays	1.25	1.25	1.25
JP Morgan Chase	1.25	1.00	1.00
ING Financial Market	1.25	1.25	1.25
Morgan Stanley	1.25	1.00	1.00
UBS	1.25	1.25	0.75
Standard Chartered	1.25	1.25	1.00
Bank of America	1.25	1.00	0.75
중앙값	1.25	1.25	1.00

주 : '19.10월기준, 자료 : Bloomberg

### 3. 금융시장 [환율]

**(현황) 일본發 충격에 美中 무역분쟁 재점화가 맞물리며 급등('18년말 1,115.7 → '19.9월말 1,196.2원)**

- 원·위안 동조화로 8월 위안/달러가 7위안을 상회하자 원/달러도 '16.3월 이후 최고치인 1,222.2원(8.13일)까지 상승

**(전망) 글로벌 달러약세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으로 원/달러 환율 소폭 상승**

- 美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글로벌 달러약세가 예상
- 美中 무역분쟁, 日수출규제 등이 대외 불확실성이 잔존하여 한국의 수출회복이 느리게 진행
  - ※ 10월 美中 8월 스물딜에도 불구하고, 최종합의까지 상당기간이 예상되어 단시간에 세계교역이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제한적
- 경상흑자와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이 양호하여 원/달러 환율의 추가급등 가능성은 低
  - ※ 원/달러 환율 상한이 1,220~1,250원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추가상승시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가능성도 존재

#### < 원/달러 환율 >



주 : ( )는 연평균 원/달러 환율, '19년은 1.1~9.30일 평균  
자료 : 한국은행

#### < 주요IB의 원/달러 환율 전망 >

(원)	'19년 <sup>(e)</sup>	'20년 <sup>(e)</sup>	
		6월	12월
Barclays	1,220	1,250	1,255
BNP Paribas	1,225	1,240	1,220
Citigroup	1,220	1,229	1,209
ING Financial Market	1,240	1,200	1,160
Morgan Stanley	1,230	1,210	1,200
JP Morgan Chase	1,240	1,260	-
Standard Chartered	1,210	1,230	1,250
Wells Fargo	1,200	1,215	1,225
평균	1,223	1,229	1,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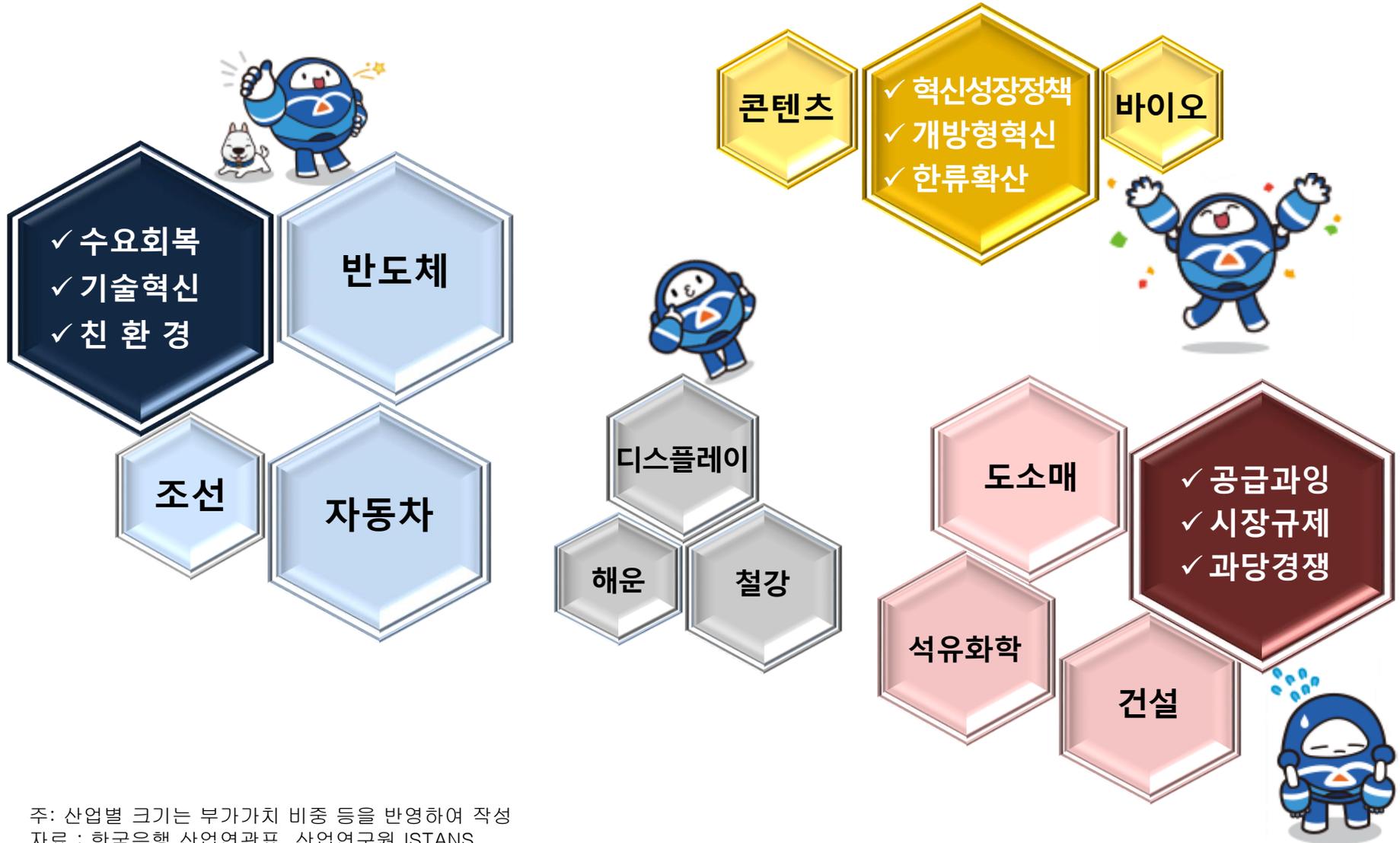
주 : '19.10월기준, 기말기준, 자료 : Bloomberg

## Ⅱ. 산업부문

- |          |         |         |
|----------|---------|---------|
| 1. 반도체   | 5. 철강   | 9. 콘텐츠  |
| 2. 해운·조선 | 6. 석유화학 | 10. 바이오 |
| 3. 자동차   | 7. 도소매  |         |
| 4. 디스플레이 | 8. 건설   |         |

# “Serendipity 어둠 속에서 뜻밖의 발견”

경기불확실성, 무역분쟁, 수요부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혁신과 저력을 통해 뜻밖의 성과를 창출하는 2020년



주: 산업별 크기는 부가가치 비중 등을 반영하여 작성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산업연구원 ISTANS

# 1. 반도체

- (현황) 수출부진 → (전망) 점진적 회복

# 1. 반도체 [현황]

## 글로벌 수요부진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메모리 가격이 급락

- ①美中 무역분쟁에 따른 중국시장의 수요부진 ②스마트폰 역성장('19.上,  $\Delta$ 4.7%)
  - ③서버용 CPU 공급차질에 따른 서버투자 부진 등 글로벌 수요부진으로 메모리 가격이 하락
- ※ DRAM 8G 가격(2400Mhz, 월평균가격, 달러) : 7.99('18.8)  $\rightarrow$  6.54('19.1)  $\rightarrow$  3.6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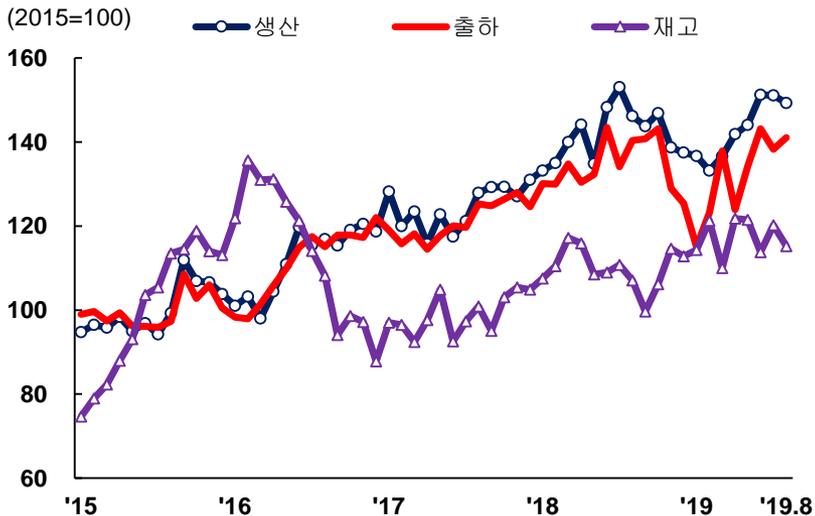
## 최근 수요회복 기대감으로 생산과 출하는 증가, 단 재고는 여전히 높은 수준

- 5G와 서버용 CPU 신규출시로 수요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으나, 공급과잉 해소에는 역부족

## 메모리 가격하락과美中 무역분쟁 영향으로 수출은 마이너스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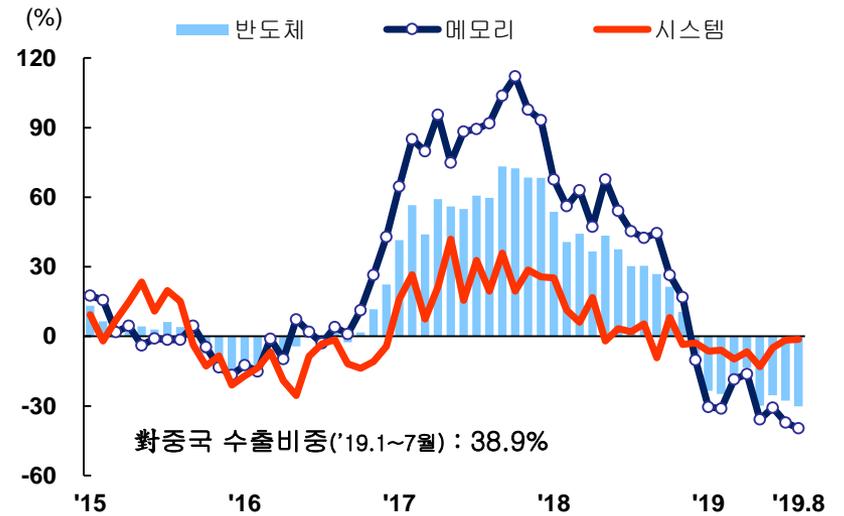
- 특히 반도체 수출비중이 높은 對중국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 $\Delta$ 27.7%)하며 반도체 수출은 23.2% 감소

< 국내 반도체 생산·출하·재고 지수 >



주 : 반도체 = 산업코드 C261+C262, 계절조정, 자료 : 통계청

< 반도체 수출 >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TStat

# 1. 반도체 [이슈] : 非메모리\* 강국 도약을 위한 첫걸음

\* ①시스템 반도체(컴퓨터 중앙처리장치인 CPU, 스마트폰의 두뇌역할인 AP, 각종 센서 등) ②파운드리(반도체 제조공장) ③광·개별소자 ④전력반도체 등

## 4차 산업혁명(AI, IoT가전, 자율주행 등)으로 다양한 제품군에서 시스템 반도체 수요증가 전망

-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메모리 반도체(저장장치) 수요는 증가하겠지만, 성장은 제한적\*

\* (개인) 저장장치 확대 → 클라우드/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기업) 하드웨어 투자 → 소프트웨어 투자로 메모리 효율화

## 삼성전자, 非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도 1위 도약을 위해 '30년까지 133조원 투자 계획

- 글로벌 경쟁력 있는 파운드리('18년 2위, 14.9%), 이미지센서(2위, 19.6%), AP(4위, 12%)로 투자가 집중될 전망

## 非메모리 육성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구조\* 개선 및 중소기업에까지 저변확대 기대

- 정부와 삼성전자의 非메모리 부문 투자확대로 중소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포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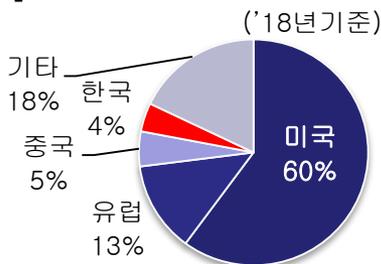
\* 한국은 非메모리 시장 점유율이 아직 낮고(글로벌 M/S 4%) 메모리 생산에 편중('18년 생산비중 74.3%)된 산업구조

### < 非메모리 반도체시장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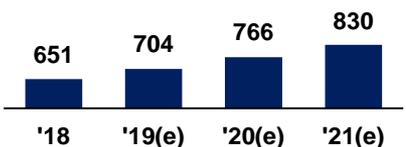
[ 반도체 시장규모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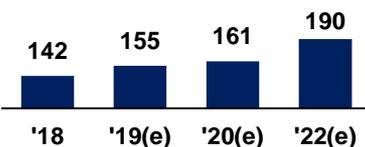
[ 非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



[ 파운드리시장 전망 ]



[ 이미지센서시장 전망 ]



단위 : 억달러, %, 자료 : IHS마켓, 이미지센서는 IC insights

### < 삼성전자의 '반도체 비전 2030' 개요 >

#### 비전

- 2030년까지 非메모리 반도체 부문\* 세계 1위
- \* 시스템IC, 개별소자, 전력반도체, 파운드리 등

#### 투자

- 2030년까지 133조원 투자
- 연구개발 : 파운드리 40조원, 시스템LSI 33조원
- 시설투자 : 파운드리 58조원

#### 고용

- 연구개발 전문인력 1.5만명
- 간접고용(예상) 42만명

#### 상생

- 시스템 반도체 발주처 역할(가전, 스마트폰 등)
- 중소기업에 기술 노하우 및 R&D 지원

# 1. 반도체 [전망]

## 2020년부터 생산·투자가 확대\*되겠지만, 가격효과로 수출 회복속도는 더딜 전망

- '20년까지는 공급과잉으로 메모리 가격반등은 힘겨울 전망 \* '20년 반도체 장비 판매액 : 588억달러(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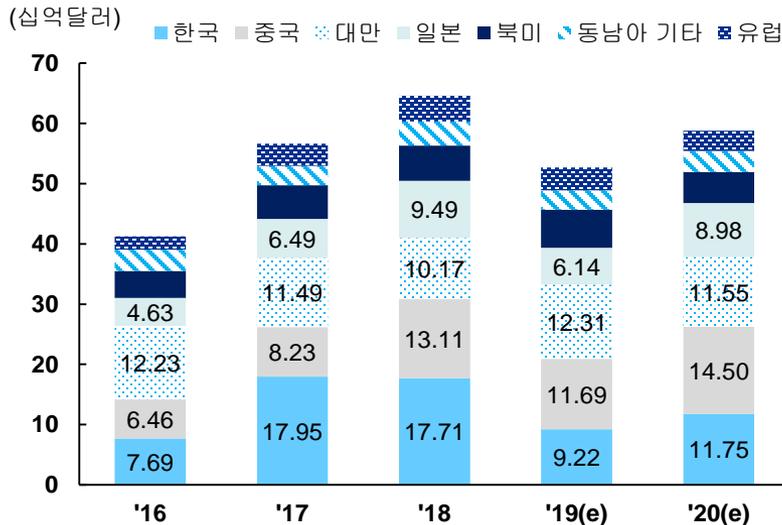
## 5G 특수와 데이터센터 투자확대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회복 예상

- 중국, 일본 등 세계전역으로 5G가 보급되고 특히 도쿄올림픽으로 5G 네트워크 투자 큰 폭 확대
- 5G가 데이터 사용을 촉진\*(스트리밍 게임, IoT보급, 자율주행차 등)하며 데이터센터 투자확대\*\* 될 전망

\* 연간 데이터 사용량 30% 증가 전망(IDC) \*\* 미국, 중국뿐 아니라 한국(네이버, 롯데 등), 일본(소니, 후지츠 등)도 투자확대

수출규제에 따른 공급차질 위험은 크지 않으나, 소재·장비 국산화는 중소기업에 기회요인  
또한 정부 및 민간의 **비메모리** 부문 투자확대로 파운드리 및 시스템 반도체 성장도 가속

< 반도체 제조장비시장 전망 >



자료 : SEMI

< 글로벌 무선 인프라 매출 전망 >

(백만달러)	'18년	'19년	'20년(e)	'21년(e)
<b>5G</b>	<b>612.9</b>	<b>2,211.4</b>	<b>4,176.0</b>	<b>6,805.6</b>
4G	20,454.7	19,322.4	<b>18,278.2</b>	16,352.7
3G	5,578.4	3,694.0	<b>2,464.3</b>	1,558.0
2G	1,503.1	697.5	<b>406.5</b>	285.2
스몰셀	4,785.6	5,378.4	<b>5,858.1</b>	6,473.1
모바일 코어	4,599.0	4,621.0	<b>4,787.3</b>	5,009.5
합계	37,533.6	35,924.7	<b>35,970.5</b>	36,484.1

자료 : 가트너('19.8)

## 2. 해운·조선

- 해운 : (현황) 업황개선 조짐 → (전망) 점진적 회복
- 조선 : (현황) 일시적 부진 → (전망) 업황개선

## 2. 해운·조선 [현황]

### (해운) 글로벌 물동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선박공급이 둔화돼 운임상승으로 업황 개선 조짐

- (벌크선) 브라질 댐붕괴 사고와 중국 석탄수입 감소 등에 따른 지연된 선박수요의 회복으로 반등
- (컨테이너선) 美中 무역분쟁으로 교역량은 줄고 있지만 대형선 중심의 운항확대로 운임은 강보합
- (탱커) 이란제재 등 유가불안에도 불구하고 美원유 수출이 확대되며 원거리효과 등으로 소폭 상승

### (조선) 글로벌 발주는 환경규제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선사들의 관망세 등으로 부진

- (글로벌 발주) 美中 무역분쟁과 선사들의 자금여력 부족 등으로 부진('19.上 전년동기대비  $\Delta$ 42.3%)
- (국내수주) 일부 LNG운반선을 제외한 대다수 선박에서 수주부진('19.上 전년동기대비  $\Delta$ 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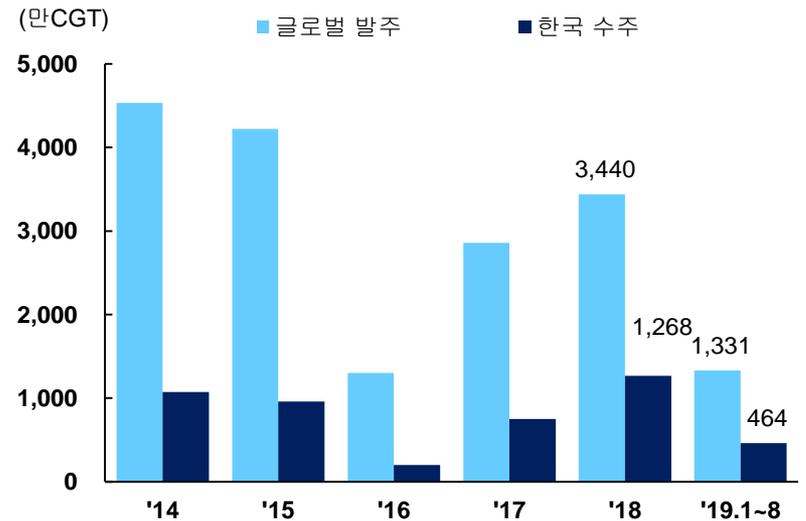
※ 국내수주中 LNG운반선 비중(%) : 81.0('19.Q1) ※ 국내 조선 건조량('19.1~8) : 676만CGT(전년동기대비 14% 증가)

< 해운운임 지수 >



주 : 컨테이너선지수는 중국상하이수출지수, 자료 : Bloomberg

< 글로벌 신규선박 발주 및 한국수주 >



자료 : Clarkson

## 2. 조선 [이슈] : LNG선박 발주가 지속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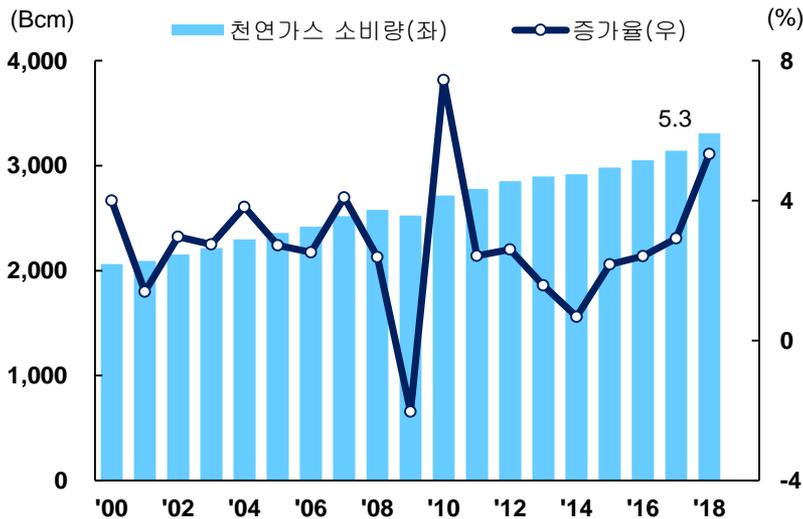
### LNG시장 전망의 장기 호조로 글로벌 LNG운반선 발주는 지속될 가능성

- '18년 전세계 천연가스 소비량은 33.1억입방미터로 전년대비 5.3% 증가해 아시아시장 중심의 호조세 지속
- '24년까지 LNG시장이 연평균 4%의 성장 전망(IEA)으로 전세계 LNG운반선의 연평균 발주량은 매년 50척 내외로 예측, '19년(약 40척)보다 빠른 성장 기대
- 한국의 LNG선박 제조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전세계 LNG운반선 수주中 국내비중은 80~90%

### IMO 2020 환경규제로 LNG운반선 이외의 LNG연료 추진선 발주의 패러다임 변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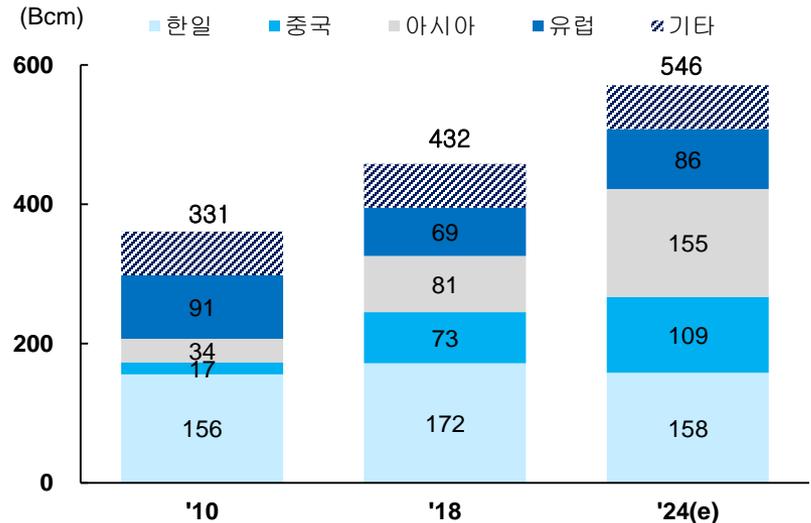
- 환경규제에 대응해 탈황 스크루버 장착 이외에 LNG연료 추진선과 Dual Fuel 엔진 발주가 확대
- '17년 이후 LNG 추진 상선(벌크선, 탱커 등)의 발주가 확대추세로 국내수주는 '19.8월중에만 24척의 성과

< 글로벌 천연가스 소비 >



주 : Bcm(Billions of Cubic Meters), 자료 : BP

< LNG 소비 전망 >



주 : Bcm(Billions of Cubic Meters), 자료 : IEA

## 2. 해운·조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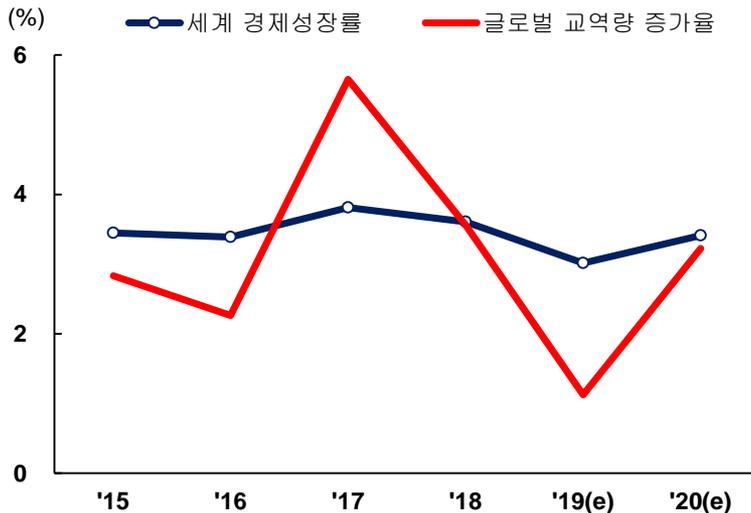
### (해운) 글로벌 물동량 반등으로 해운업황은 개선되고 국내 해운입지도 확대 기대

- 글로벌 물동량은 美中 무역분쟁 등으로 지연된 내구재 소비와 투자회복이 기대돼 반등 예상
- 현대상선은 '20.4월 이후 디얼라이언스 정회원으로 활동하게 돼 노선확대 기대
  - ※ 디얼라이언스는 하팍로이드(독일), ONE(일본), Yang Ming(대만) 등이 주축인 동맹체
- 현대상선은 '20년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인도받을 예정으로 유럽 노선 등에 투입할 계획

### (조선) IMO 2020 환경규제 실시 이후에도 LNG운반선과 추진선의 발주확대로 업황 개선 기대

- 국내수주는 LNG운반선 중심으로 '19년보다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는 LNG운반선과 엔진(Dual Fuel) 수주확대로 실적이 큰 폭 개선될 전망

#### < 글로벌 교역량 전망 >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IMF('19.10)

#### < 글로벌 신규선박 발주 >

구분	유조선 (백만DWT)	벌크선 (백만DWT)	컨테이너선 (천TEU)	LNG선 (척)	전체 (백만CGT)
'15년	52	32	2,351	34	42
'16년	13	10	298	10	14
'17년	35	44	816	18	29
'18년	27	44	1,257	77	34
'19.8월	13	14	264	34	13
증가율 (%)	33	58	62	23	43

주 :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 Clarkson

## 3. 자동차

- (현황) 소폭 회복 → (전망) 회복세 지속

# 3. 자동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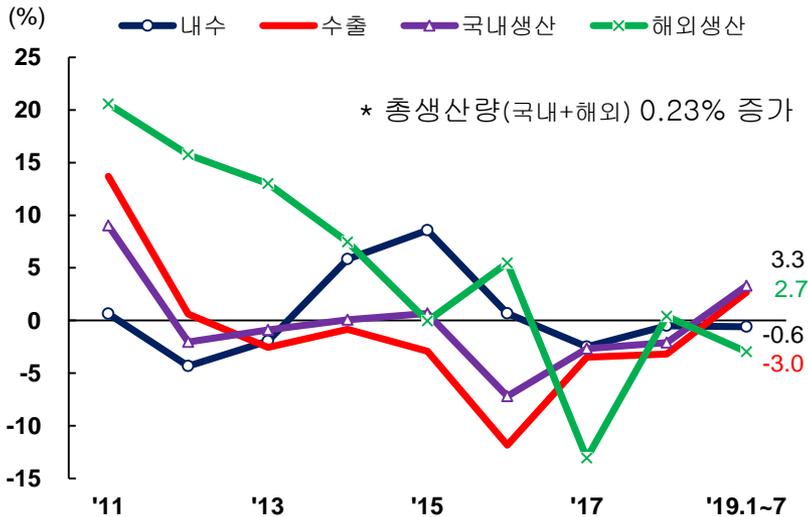
## (국내생산) 소형SUV 중심의 신차효과와 우호적인 환율여건으로 소폭 회복세 실현

- (내수) 경기둔화 우려, 개별소비세 인하효과 저하 등으로 0.6% 소폭 감소
- (수출) 북미지역이 15.8% 증가하며 수출증가를 이끌었고 전체 2.7% 증가하며 회복세 이어감
- ※ 소형SUV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22.2% 증가한 62만대('19.1~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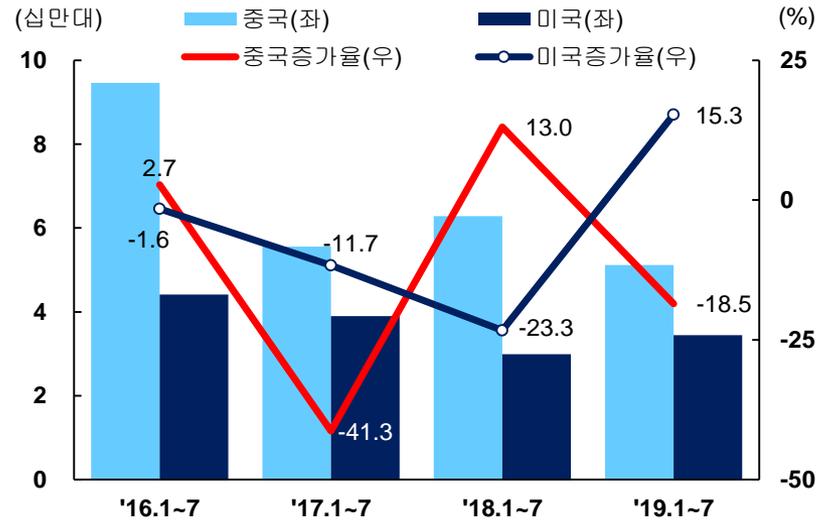
## (해외생산) 북미지역의 큰 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생산이 감소하며 역성장(△3.0%, '19.1~7월)

- (미국) SUV신차(텔루라이드, 신타페 등) 판매호조로 15.3% 증가(현대차 15.3%, 기아차 15.1%, '19.1~7월)
- ※ 북미지역내 멕시코(기아차) 현지생산은 7.1% 증가('19.1~7월)
- (중국) 과잉설비 구조조정 여파로 △18.5% 기록(현대차 △21.8%, 기아차 △11.4%, '19.1~7월)

< 완성차 생산·내수·수출 >



< 한국 완성차의 G2국가내 현지생산 >



주 : 전년동기대비, 대수기준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3. 자동차 [이슈] : 친환경차의 성장, 내수와 수출

## 친환경차 내수판매는 21.8%로 큰 폭 증가하며, 전체 내수의 7.1%를 차지('19.1~7월)

- 세부적으로 전기차(EV) 35.8%, 하이브리드(HEV) 18.3%, 수소전기차(FCEV) 843.5% 증가
- ※ 전세계 친환경차 차종별 비중('18 → '19.上, %) : (HEV) 51.0 → 50.5 (EV) 32.8 → 36.0 (PHEV) 16.1 → 13.3 (FCEV) 0.1 →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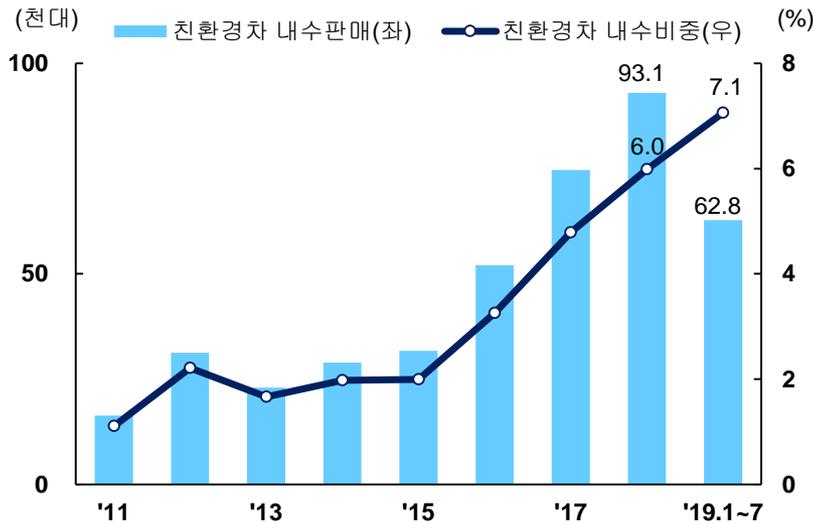
## 친환경차 수출은 38.4% 증가하며('19.1~7월), 글로벌 판매 강화중(글로벌 M/S 6.5%, 5위)

-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유럽지역으로의 수출이 67.5% 증가하며, 친환경차 전체 수출의 63%를 차지
- ※ 친환경차 주요 지역별 판매 현황('19.1~7월, 대수) : (북미) 36,458 (EU) 79,449 (유럽기타) 6,447 (중동) 8,536 (아시아) 2,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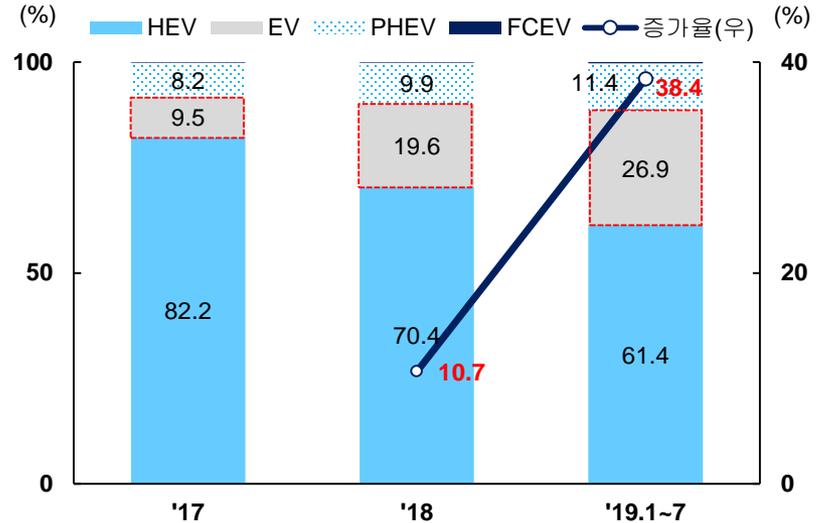
## 정부의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 발표('19.10월)로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

\* ①친환경차 세계시장 선도 ②자율주행차 미래시장 선점 ③미래차 서비스 시대 준비 ④산업생태계 대전환 지원

< 친환경차 내수판매 및 비중 >



< 한국 친환경차 수출 및 차종별 비중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주 : 전년동기대비, HEV(하이브리드), EV(전기), PHEV(플러그인), FCEV(수소전기),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3. 자동차 [전망]

## 라인업 강화효과와 해외 신규설비 가동으로 생산량 회복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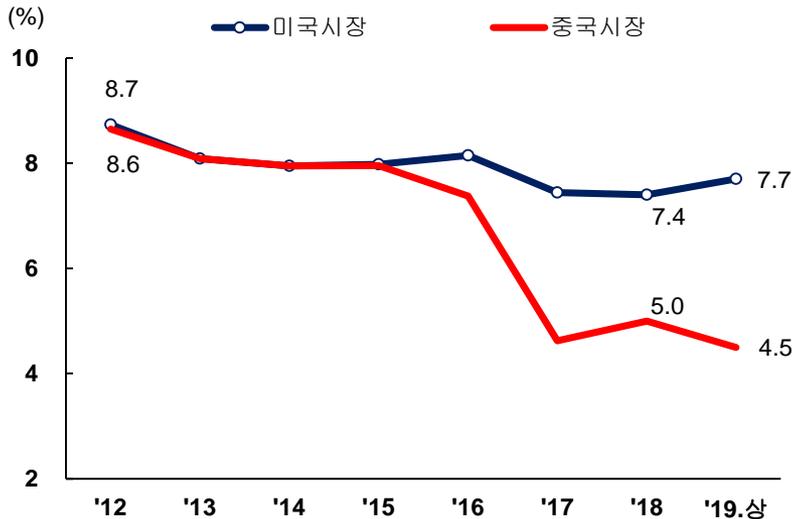
- SUV 중심의 신차 및 후속모델 출시, 친환경차 판매증가, 신규설비 본격가동(인도, '19.下)  
 ※ 특히, 글로벌 핵심 Big Volume 차종의 풀체인지 후속모델이 연이어 출시될 예정(제네시스 SUV, K5, 스포티지, 쏘렌토 등)
- 다만 글로벌 경기변동성 확대에 따른 환율여건의 불확실성은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고려

## 다만, 세계 자동차시장의 수요감소\*로 국내 완성차 회복세는 제한적

- (미국시장) 대기수요 소진, 신차가격 상승, 공유경제 등 패러다임 변화로 수요 감소요인 확대
- (중국시장) 경기둔화,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수요회복 불확실('19.上, 12개월 연속 감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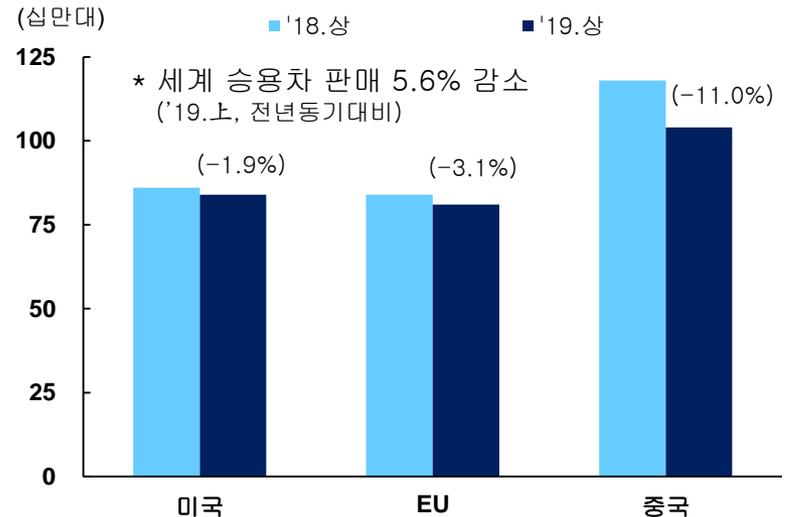
## 중소부품사는 일부 신차개발(친환경차 등) 협력사 외 전반적으로 경영여건 부진 지속

< G2국가내 한국차 점유율 >



자료 : Marklines

< 주요국 승용차 판매 >



주 : ( )는 승용차 판매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자료 : Marklines

## 4. 디스플레이

- (현황) 역사적 저점 → (전망) OLED 중심 회복

# 4. 디스플레이 [현황]

## LCD 수출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OLED 수출둔화로 디스플레이 수출 감소폭 확대

※ 디스플레이 수출('18 → '19.1~7, 전년동기대비, %) : 전체  $\Delta 8.4 \rightarrow \Delta 19.9$ , LCD  $\Delta 21.0 \rightarrow \Delta 38.0$ , OLED 11.3  $\rightarrow$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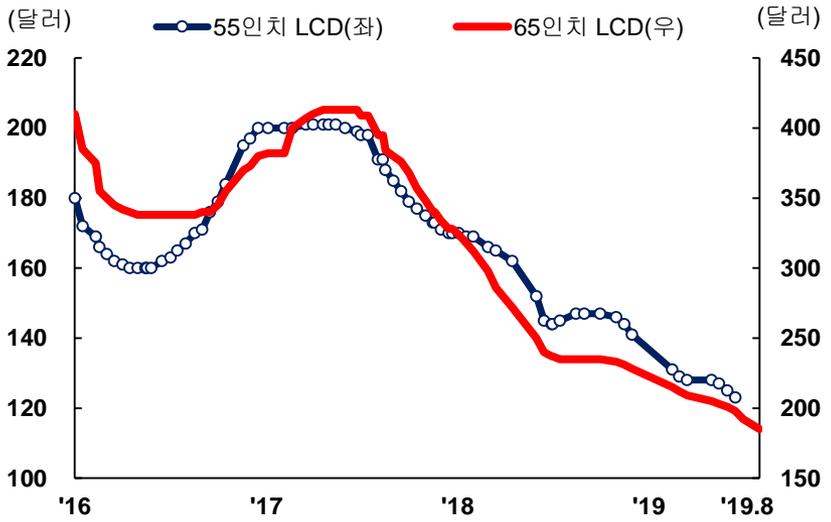
## LCD는 중국의 저가 물량공세에 국내 LCD 생산후퇴 가속화

- 중국은 한국보다 두 세대 앞선 생산공정\* 기반으로 LCD 가격경쟁력 확보, 저가의 물량공세 지속
- \* 중국은 10.5세대, 한국은 8.5세대 생산공정, (10.5세대) 55인치 10장, 65인치 8장 생산 vs (8.5세대) 55인치 4장, 65인치 3장 생산
- 삼성디스플레이 8월中 9만장, 9월中 3만장 생산능력 감축, LG디스플레이 연내 5만장 생산감축 검토

## OLED는 한국이 독점적 지위(M/S 소형 88%, 대형 100%)에 있으나, 글로벌 경기둔화로 수요가 주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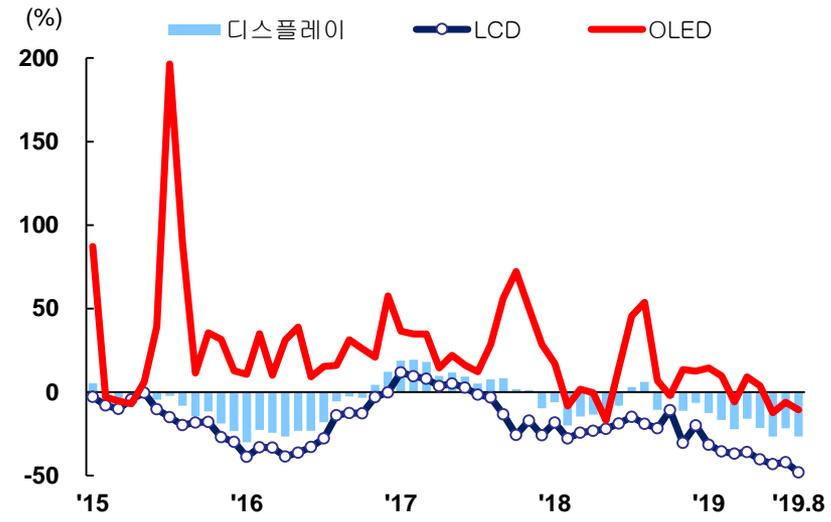
- 스마트폰 역성장과 美中 무역분쟁 심화로 OLED를 탑재한 프리미엄 제품수요가 주춤한 상황

< 대형 LCD 가격 >



자료 : inSpectrum Tech

< 디스플레이 수출 >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TStat

# 4. 디스플레이 [이슈] : LCD 패권을 잡은 중국, OLED 추격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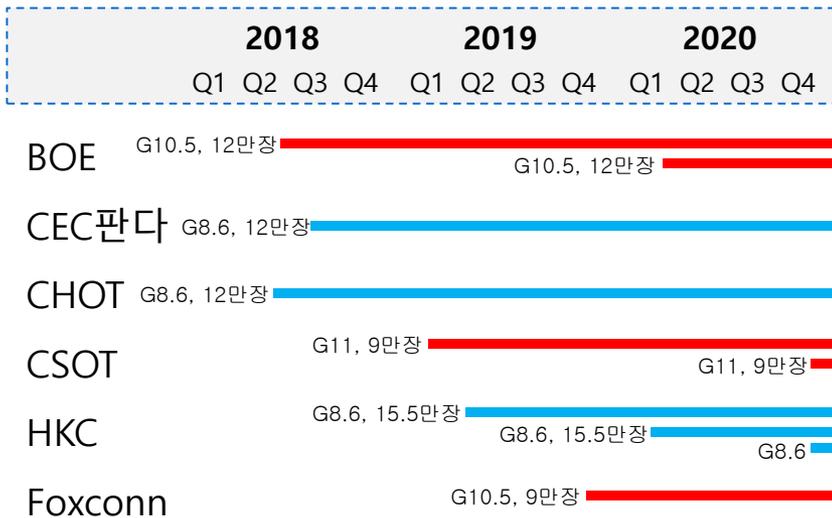
## 중국이 10세대 이상 공장가동을 본격화하며 LCD시장 패권은 중국으로 이동

- BOE, CSOT(차이나스타), Foxconn 등 '20년에는 10세대 공장만 5기 이상 가동될 계획
  - 한국기업(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은 8세대 이후부터는 투자비용, 공급과잉 문제로 투자 중단
- ※ 대형 LCD M/S('18.Q1 → '19.Q1, 출하량기준, %) : LG디스플레이 17.4 → 15.8, 삼성디스플레이 13.8 → 11.0, 중국 패널社 40.7 → 47.9

## 소형 OLED시장은 중국의 추격전 가속화, 대형 OLED는 아직 기술격차 현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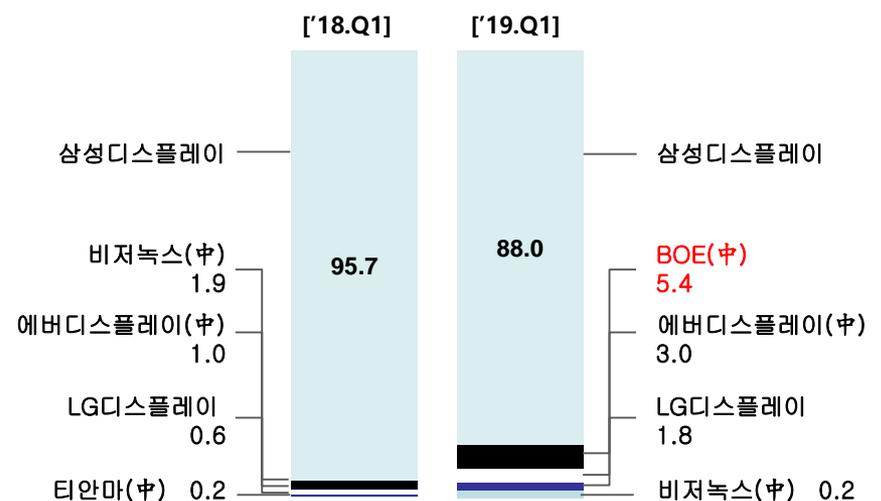
- 중국의 BOE가 소형 OLED시장에서 점유율을 5.4%까지 확대하며 2위로 맹추격중
  - BOE는 소형 OLED 생산능력은 18만장으로 삼성(16.5만장)을 추월\*했으나, 수율은 50% 수준에 그침
- \* '21년 중국 플렉서블 OLED 생산능력이 삼성디스플레이 초과 예상(IHS마켓)

### < 중국의 주요패널社 양산계획 >



자료 : AVC Revo, 디스플레이협회 재인용

### < 소형 OLED 시장 점유율 >



주 : 출하량기준, 단위 : %, 자료 : IHS마켓

# 4. 디스플레이 [전망]

## LCD 부진은 지속되겠지만, OLED 수요가 개선되며 디스플레이 수출 소폭 회복

- OLED가 디스플레이 수출의 주력상품이 될 전망 ※ OLED 수출(비중, %) : 18.6('15) ⇒ 34.8('17) ⇒ 49.5('19.1~7)

## LCD는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국내 패널사의 생산감축 등으로 부진 지속

## OLED는 5G보급 확산, 올림픽 등으로 수요가 크게 개선

- (소형) 프리미엄폰 중심으로 OLED 수요는 개선되겠지만, 중국과의 경쟁심화로 가격하락 우려
  - \* 기술수준이 높은 폴더블 OLED 패널도 중국 제조사는 중국 패널 사용 : 화웨이-BOE, 샤오미-비저녹스, TCL-CSOT
- (대형) 도쿄올림픽 특수로 OLED TV 수요확대 ※ 올림픽 8K 중계, 일본의 하이엔드 TV시장은 OLED가 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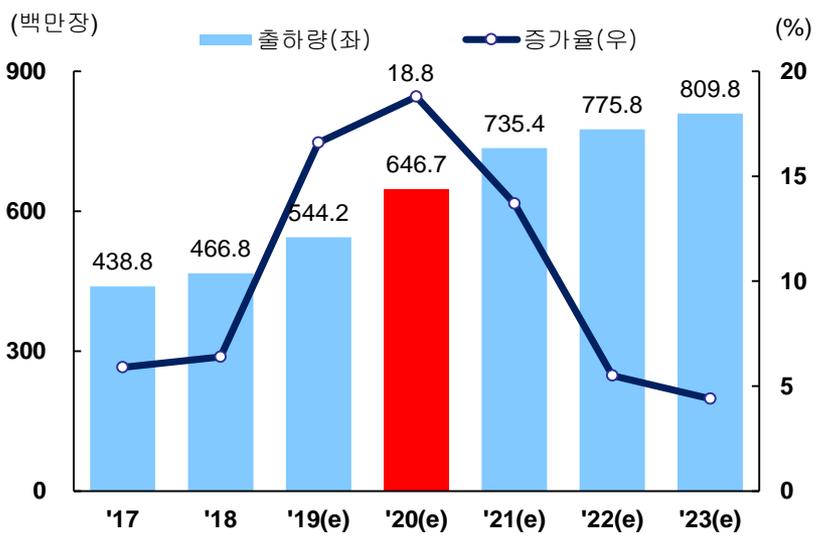
## 중 OLED 투자확대로 경쟁력 있는 국내 장비업체의 수출은 개선 ※ BOE OLED 공장설비 10대중 4대가 한국산

< 국내 패널사의 8세대 LCD 생산능력 전망 >

기업	공장	'19.Q1	'19.Q2	'19.Q3	'19.Q4	'20년
LGD	P8-1	420	420	420	360	300
	P8-2b	150	150	150	150	150
	P8-2a	186	165	150	150	150
	P9-1	120	120	120	120	120
	P9-2	90	90	90	90	90
	P9-3	45	60	60	60	60
	합계		1,011	1,005	990	930
삼성D	L8-1	585	585	405	315	315
	L8-2	604	504	453	399	399
	합계	1,189	1,089	858	714	714

단위 : 천장, 월생산량기준, 자료 : IHS마켓

< OLED 출하량 전망 >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IHS마켓, 한국수출입은행 재인용

## 5. 철강

- (현황) 생산, 수출 동반감소 → (전망) 수출감소 지속

# 5. 철강 [현황]

## (생산) 자동차, 건설에서의 철강수요 부진으로 냉연강판, 철근 위주로 생산이 감소

- 국내 조선산업의 회복으로 중후판 수요가 크게 늘어났지만, 중국산 자재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중후판 생산은 소폭 증가(2.5%)

※ 중국산 중후판 수입(전년동기대비, 물량기준, %) :  $\Delta 13.3('15) \rightarrow \Delta 8.1('16) \rightarrow \Delta 48.9('17) \rightarrow \Delta 45.3('18) \rightarrow 58.3('19.1\sim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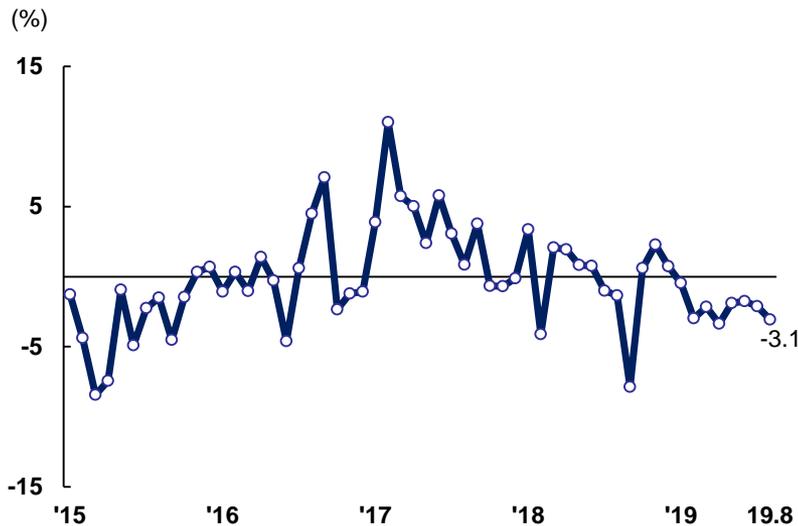
## (수출) 각국의 수입규제 확산과 자국 생산확대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어 감소

- 글로벌 철강재 시장침체에 따라 철강재 수출단가도 꾸준히 하락하여 수출환경이 점차 악화

※ 철강재 수출단가(전년동기대비, %) :  $3.1('19.1) \rightarrow \Delta 0.3(3) \rightarrow \Delta 3.6(5) \rightarrow \Delta 17.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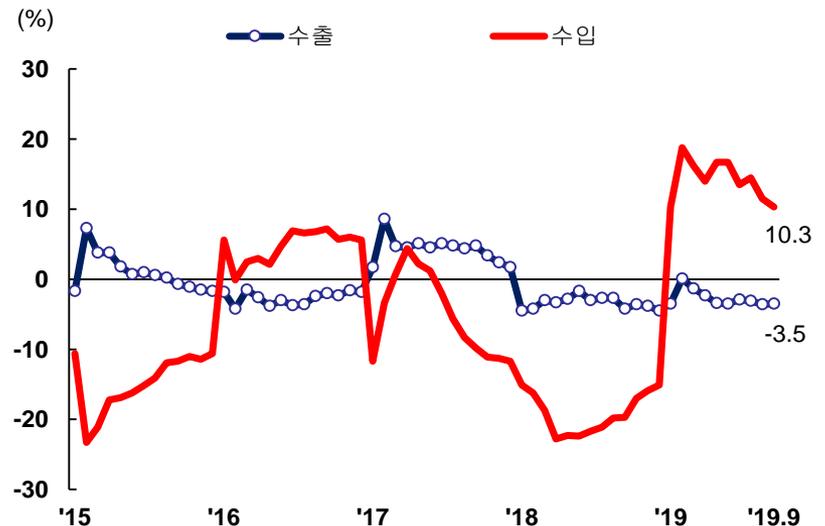
- (수입) 중국, 인도네시아, 바레인 등에서 생산되는 저가 철강재 위주로 수입 증가

< 주요 11개 품목 철강재 생산 >



주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한국철강협회

< 철강재 수출입 >



주 : 전년동월대비, MTI61 물량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 5. 철강 [이슈] : 中 공급과잉 재현 가능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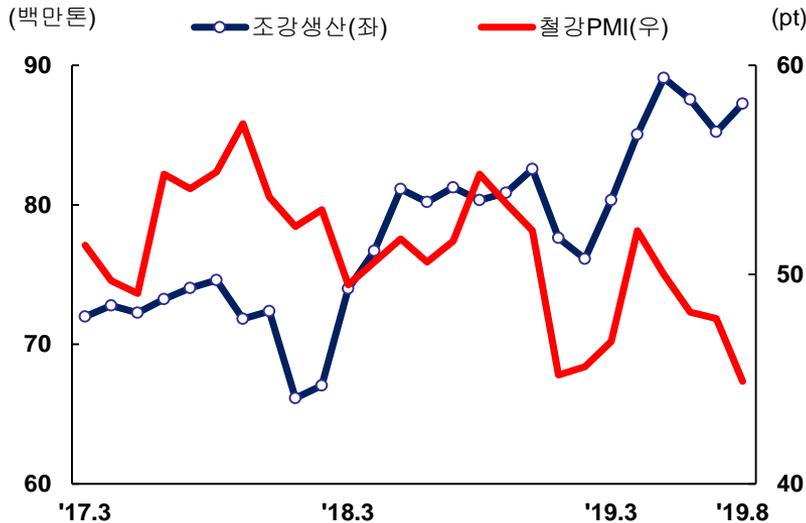
## 중국內 철강 생산증가와 수요둔화가 겹치며, 수급 불균형 가능성 증가

- (생산) 中정부의 환경규제 강도 완화, 신규설비 본격 가동으로 가동률이 지속 상승하며 증가세 뚜렷  
 ※ 중국 철강 가동률(%) : 72('16.6) → 76('17.6) → 79('18.6) → 81('19.6)
- (수요) 중국 철강PMI가 4개월 연속 하락, '15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둔화되는 모습
- 또한, 주요 철강업체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며, 정부 주도의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은 낮은 상황

## 경기부양을 위한 인프라투자 확대 외에는 수요개선이 어려운 상황, 中정부정책을 주목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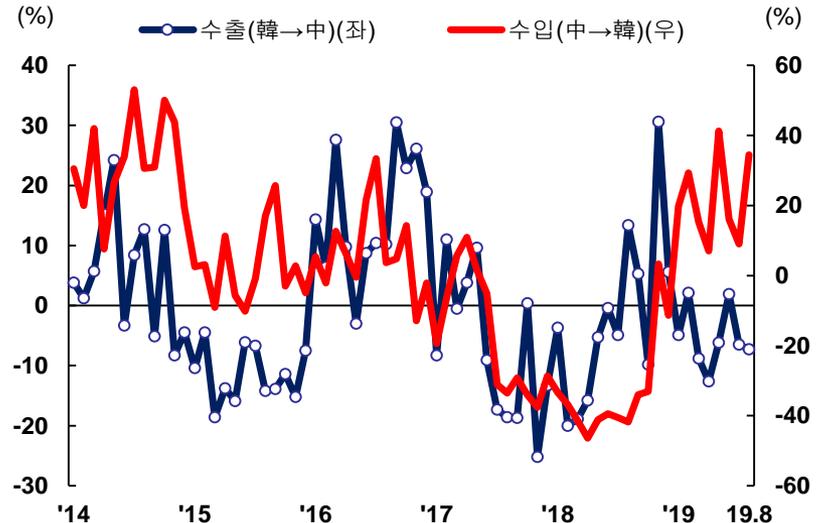
- 자동차소비 등 주요 수요처 부진 지속으로 인프라투자 저조時 저가 밀어내기 수출 재현 가능성
- 과거 중국산 철강수입 급증時 국내산 철강 유통가격 교란으로 국내 제조업체의 수익성 부진 경험

< 중국 철강 생산 및 수요 >



자료 : 국가통계국

< 한국의 對중국 철강 수출입 >



주 : 전년동기대비, MTI61 물량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 5. 철강 [전망]

## (내수) 자동차 및 조선업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건설수요 둔화로 2019년 수준 유지

-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규제로 인한 민간 주택경기 둔화로 봉형강류 수요 감소
- 다만, 소형SUV 판매호조와 LNG선 수주증가로 판재류 수요 소폭 증가

## (수출) 글로벌 철강수요 감소와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 영향 등으로 수출량 감소

- '18년 美철강쿼터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신흥국 위주로 규제 증가

※ 강관 수출량(전년동기대비, %) : 10.7('18.Q1) → △31.9(Q2) → △58.8(Q3) → △16.7(Q4) → △32.2('19.Q1) → △20.7(Q2)

- 특히,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 아세안 등으로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우려
-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 현실화時 국내산 철강의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수출량 감소폭 확대 위험

< 국가별 철강수요 >

(%)	'18년	'19년 <sup>(e)</sup>	'20년 <sup>(e)</sup>
중국	7.9	7.8	1.0
EU	3.6	△1.2	1.1
NAFTA	0.9	0.6	0.8
아세안	4.9	3.1	5.6
CIS	1.9	4.8	2.0
전세계	4.6	3.9	1.0

주 : 전년대비, 자료 : 세계철강협회

<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사중 품목 >

국가	품목명	규제 유형	조사개시월
중국	스테인리스 열연	반덤핑	'18.7월
EAEU	철강재 일부, 용접 스테인리스 강관	세이프가드	'18.7월 '19.3월
인도네시아	알루미늄 호일	세이프가드	'18.10월
말레이시아	냉연코일	반덤핑	'19.3월
인도	도금강판, 석도강판 스테인리스 압연강판	반덤핑	'19.4월, '19.6월 '19.7월
이집트	건축용 철강재 및 강철봉	세이프가드	'19.4월
모로코	열연강판	세이프가드	'19.5월
미국	풍력타워	반덤핑	'19.7월

자료 :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 6. 석유화학

- (현황) 공급증가 → (전망) 경쟁심화

# 6. 석유화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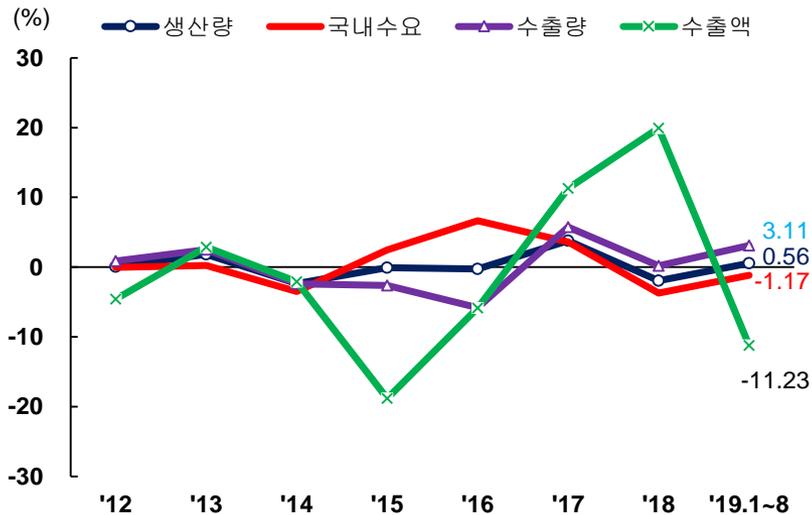
## 생산량과 수출량은 안정적 유지, 그러나 제품가격 하락으로 수출액은 큰 폭 감소

- 3대 유도품의 생산량과 수출량 모두 소폭 증가하며, 안정적 생산규모 실현('19.1~8월)
- 수출액은 글로벌 공급량 증가에 따른 제품가격 하락으로  $\Delta 11.2\%$  감소('19.1~8월)
- ※ 주요품목 수출액('19.1~8, 전년동기대비, %) : (기초유분)  $\Delta 17.3$  (중간원료)  $\Delta 9.8$  (합성수지)  $\Delta 12.8$  (합성고무)  $\Delta 12.3$

## 2019년 상반기부터 주요제품 가격이 최근3년 평균가격을 하회하며 하락세 전환

- 신규설비 가동에 따른 공급량 증가대비 무역분쟁 등으로 인해 수요 증가세가 부진한 실정
- 주요제품의 가격스프레드\* 축소 \* NCC(나프타크래커) 원재료 납사의 가격과 제품가격 간 스프레드
- ※ 에틸렌 가격스프레드(달러/MT) : 745('17.8)  $\rightarrow$  726('18.8)  $\rightarrow$  412('19.8)

< 3대 유도품 생산, 내수 및 수출 >



주 : 전년동기대비, 3대 유도품은 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  
 자료 :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무역협회

< 에틸렌 가격 >



자료 : 한국석유화학협회

## 6. 석유화학 [이슈] : 글로벌 설비투자 과잉 우려

### 에틸렌 글로벌 수요 증가분을 상회하는 NCC 신규설비 가동으로 공급과잉 가능성 확대

- '19년 1,300만톤의 신규가동에 이어 '20년 1,200만톤 규모의 신규설비 가동 예정
- 글로벌 수요 증가율이 3.8% 수준으로 추정되나 공급 증가율은 4.6%에 달할 것으로 예측
- 정유업계의 다운스트림 사업확대로 에틸렌 공급 증가압력 더욱 가중

### 세일가스 생산량 증대에 따라 美ECC 계열의 에틸렌 공급증가 예상

- 세일 원유 추출기술의 발전으로 세일가스를 이용한 美ECC(에탄크래커) 설비투자 확대

※ 美세일가스 생산량(억입방피트) : 6,160('10) → 13,640('15) → 16,540('17) → 22,810('20<sup>(e)</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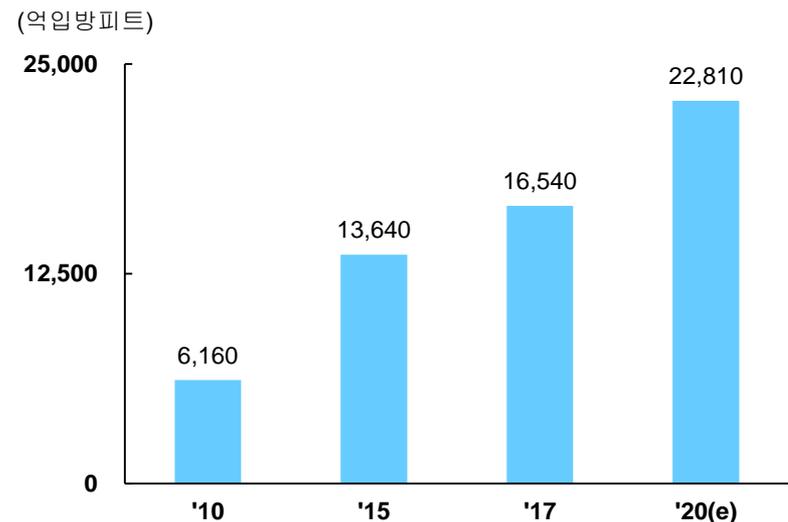
- 상대적으로 ECC의 원가수준이 NCC 보다 낮아 국내업계 어려움 가중

#### < 2020년 주요 NCC 신규설비 가동 계획 >

(만톤/년)	생산능력	시기
Sibur ZapSibNeftekhim(러시아)	150	Q1
Zhejiang Petchem(중국)	140	Q1
Wanhua Chemical(중국)	100	Q3
Sinochem Quanzhou(중국)	100	Q4
Liaoning Bora(중국)	100	Q4
ORPIC(오만)	88	Q2
Sinopec Zhongke(중국)	80	Q1
Dow-Dupont(중국)	50	Q1
PTTG(태국)	50	Q3

자료 : 한국석유화학협회, 업계자료

#### < 미국 세일가스 생산량 >



자료 : USEIA

# 6. 석유화학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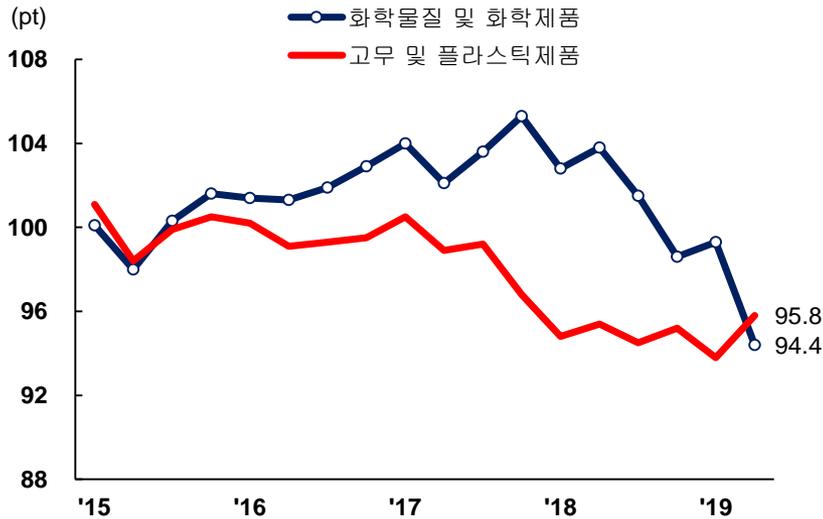
## 생산, 수출 둔화 가능성 확대, 다만 급격한 업황부진 가능성은 낮음

- 국내수요는 건설투자 등 전방산업의 부진이 이어질 전망으로 회복가능성 낮음
- 글로벌 공급경쟁 심화와 미국의 중국산 소비재에 대한 관세확대時 설비가동률 하락 불가피
  - ※ 화학제품 설비가동률은 94.4를 기록('19.Q2), 호황기('17.Q4=105.3) 대비 89.6% 수준
- 다만 높은 집적효과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우위는 지속될 것 \* 에틸렌 생산능력 : 전세계 4위(M/S 5.3%)

## 산업내 국내 중소기업들의 현금흐름 수준은 다소 악화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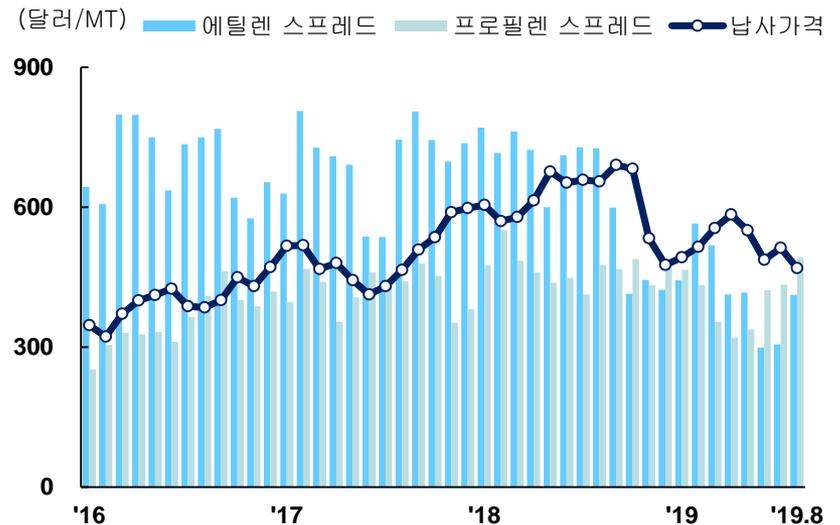
- 무역분쟁 지속에 따른 수요 증가세 위축, 반면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생산확대에 따른 공급과잉
- 주요제품의 산업내 경쟁심화 및 가격 하락세 지속

< 설비가동률 지수 >



주 : 계절조정, 자료 : 통계청

< 주요제품의 가격스프레드 >



주 : 스프레드=제품가격-납사(원재료)가격  
 자료 : 한국석유화학협회

## 7. 도소매

- (현황) 성장세 둔화 → (전망) 둔화 지속

# 7. 도소매 [현황]

## 가계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 등으로 도소매판매 증가율 둔화

※ 처분가능소득(전년동기대비, 실질, %) : 0.3('18.Q1) → 1.4(Q2) → 0.3(Q3) → 2.1(Q4) → △0.5('19.Q1) → 2.7(Q2) \* '19.上 1.0% ↑

- (내구재) 개별소비세 인하('18.7월) 등으로 수입차 판매가 급감했고 온화한 날씨로 가전판매도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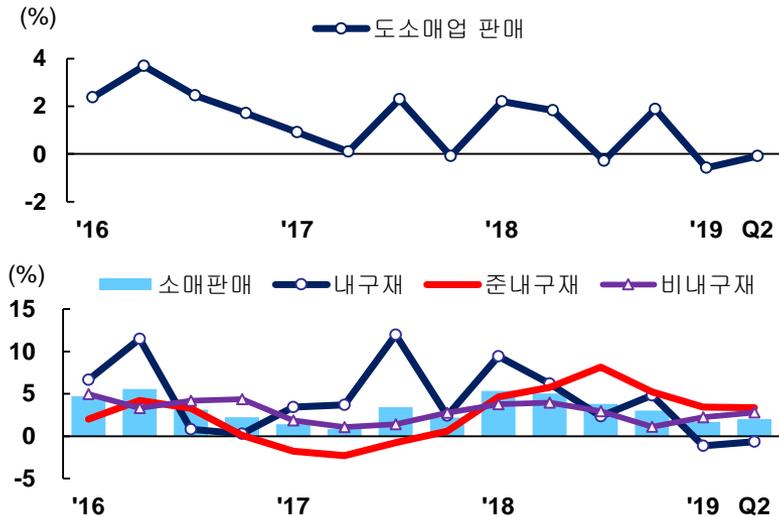
※ 수입차(전년동기대비, 불변, %) : 30.4('18.Q1) → 24.0(Q2) → △25.6('19.Q1) → △21.9(Q2), 승용차(%) : 9.1('18.Q1) → 9.0(Q2) → △5.2('19.Q1) → △3.6(Q2)

- (준내구재) '18년 가계소득 증대정책으로 증가했던 소비(의류, 가방, 취미용품 등)가 기저효과로 큰 폭 둔화

## 업태별로는 면세점과 무점포소매 판매는 증가한 반면, 슈퍼마켓 판매는 감소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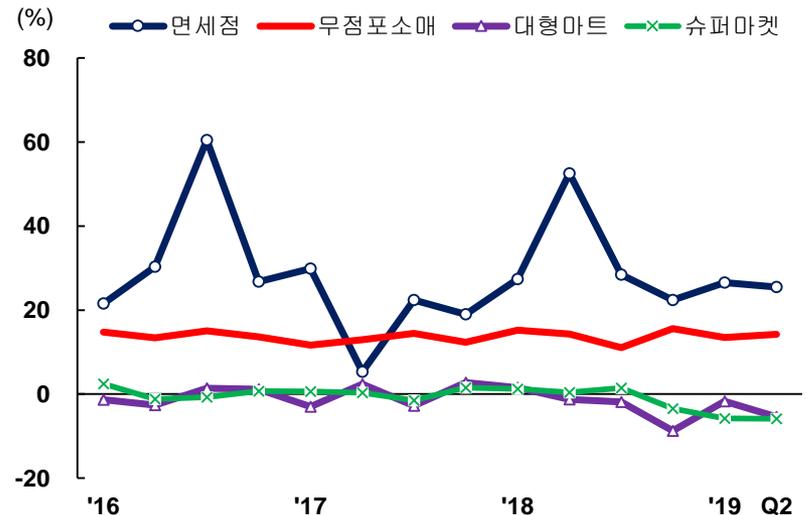
- 중국인 관광객이 늘고 프리미엄 가전 및 해외 명품 판매 증가로 면세점과 백화점 판매액이 증가
- 온라인채널을 통한 음식료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대형마트·슈퍼마켓과의 경쟁 가속화

< 도소매업 판매 및 재화별 소매판매 >



주 : 전년동기대비, 불변, 자료 : 통계청

< 소매 업태별 판매액 >



주 : 전년동기대비, 무점포소매는 인터넷, 홈쇼핑, 배달, 방문판매를 의미, 불변, 자료 : 통계청

# 7. 도소매 [이슈] :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

## 취급상품 다양화 및 서비스 확대로 온라인채널 판매는 높은 증가율 유지

- 1~2인용 소형가전, 스마트가전 등 제품군이 다양화되며 가전제품 판매가 29.2% 증가
- '음식배달', 신선식품 '새벽배송' 등으로 음식서비스(전년동기대비, 88.1%) 및 음식료품(25.1%) 판매액 증가

※ 온라인채널 판매액(전년동기대비, %) : 21.4('16) → 21.9('17) → 20.8('18) → 17.8('19.上)

## 새로운 서비스 런칭이 온라인채널의 성장 모멘텀이 되며 업체간 경쟁 가속화

- 주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새벽배송' 서비스를 시작하고 온라인 물류투자를 확대
- '새벽배송'을 이끌었던 쿠팡은 '음식배달' 서비스에 동참하며 업체간 경쟁과열이 우려
- 온-오프라인 메인업체의 협력으로 온라인채널 내 프리미엄시장 본격확대 \* 쿠팡-현대백화점 제휴('19.9월)

### < 온라인채널 상품군별 판매액 >

[ '17년 상반기 ]				[ '19년 상반기 ]			
	상품군	판매액	비중		상품군	판매액	비중
1	여행 및 교통 서비스	6.9	15.5	1	여행 및 교통 서비스	8.3	12.9
2	의복	5.6	12.5	2	가전·전자 통신기기	7.1	11.1
3	가전·전자 통신기기	4.2	9.5	3	의복	7.0	10.9
4	화장품	4.0	8.8	4	음식료품	6.2	9.8
5	음식료품	3.8	8.5	5	화장품	5.7	8.9
12	음식서비스	1.2	2.6	7	음식서비스	4.2	6.5

주 : 경상기준, 조원, %, 자료 : 통계청

### < 주요 유통업체의 온라인판매 관련 투자 >

기업명	주요내용
신세계	온라인 신설법인 SSG닷컴 출범('19.3월) 신선식품 새벽배송 서비스 시작('19.6월) 온라인전용물류센터 네오003 오픈예정('19.12월)
롯데쇼핑	새벽~심야까지 올데이 배송시스템 구축('19.7월) 온라인 통합작업 진행중, 온라인전용센터 추가계획
홈플러스	기존 점포 인프라를 온라인 물류센터로 활용
CJ오쇼핑	새벽배송 예정, 광주 통합물류센터 가동('19.9월)
쿠팡 프레시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지역 진행 중('18.10월~) 음식배달 서비스 '쿠팡 이츠' 서비스 런칭('19.5월)
마켓컬리	김포 복합물류센터 오픈예정('20.11월 완공목표)

자료 : 각사 홈페이지

# 7. 도소매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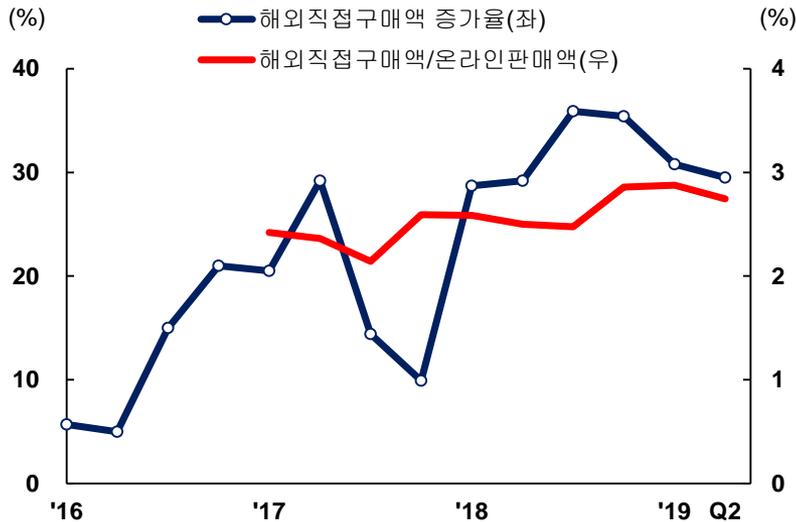
## 최저임금 증가율은 둔화하지만 부양책 종료, 해외직접구매 증가 등으로 도소매판매 소폭 둔화

- 유류세('19.9월), 개별소비세('19.12월 예정) 등 소비 부양정책 종료로 자동차 등 관련 소비 부진
- 내수소비를 대체하는 해외직접구매의 빠른 성장이 소매판매 증가의 걸림돌로 작용

## 오프라인채널은 업태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종사업 병행 등을 통한 차별화 전략 확장

- 편의점과 백화점 등은 온라인쇼핑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활용하여 서비스 영역확대
  - ※(편의점) 고객과의 접점 활용 → 항공권 결제 등 부가서비스 다변화 (백화점) 프리미엄 전략 → 팝업스토어 등 트렌드 변화 대응
-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은 주력상품이던 '식품 부문'까지 온라인채널과 경쟁하며 실적부진 전망
- 신규 투자여력 부족한 중소 유통업체는 온-오프라인 대기업의 공격적 투자영향으로 경영환경 악화

### < 해외직접구매 >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 <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사업확장 사례 >

업태	주요내용
편의점	편의점 항공권 결제 서비스 도입(CU-제주항공) 식품 전문체인업체와 제휴로 직접 제조, 소단위 판매 편의점 상품배달서비스(CU-GS25-빙동·요기요 제휴)
백화점	해외명품 팝업스토어 설치, 리빙 및 홈퍼니싱 매장 확장 인기 캐릭터 전시회 개최, 아쿠아리움과 테마파크 마련 프리미엄 식품관 리노베이션, 유명 카페·식당 입점 유치
대형마트	이마트, 일부 점포부지를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개발 롯데쇼핑, 리츠(부동산투자회사)형태로 상장, 자금 확보 롯데마트, 자체브랜드 축소(기존 38개 → 변경 10개) 이랜드리테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

자료 : 각사 홈페이지

## 8. 건설

- (현황) 부진 지속 → (전망) 부진속 분야별 차별화

# 8. 건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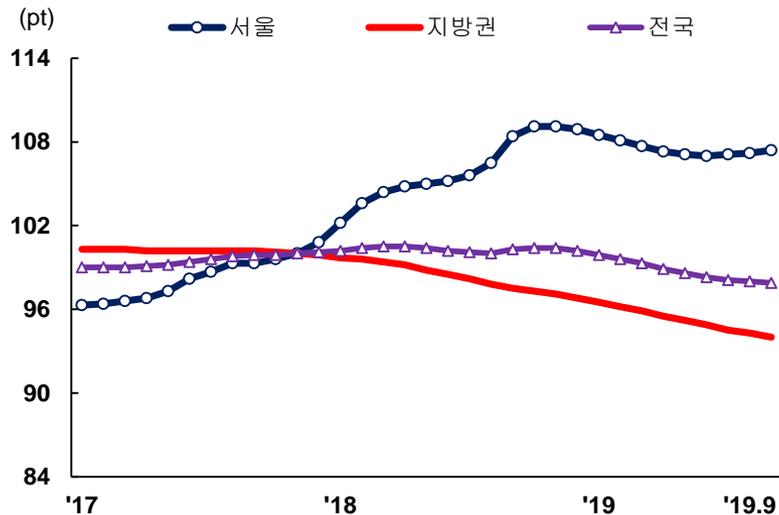
## 주택매매가격은 서울 등 주요도시에서 소폭 반등하면서 하락세가 완만

- (서울) 서울 주택가격은 분양가 상한제 회피를 위해 후분양제로 전환하며 재건축이 활발해져 반등
  - (지방권)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한 가운데 미분양 물량은 소폭 확대
- ※ 전국 미분양 물량(만세대) : 6.0('18년 평균) → 5.9('19.1) → 6.2(4) → 6.3(7)

## 국내수주는 공공토목과 민간건축 등 소폭 증가했으나, 해외수주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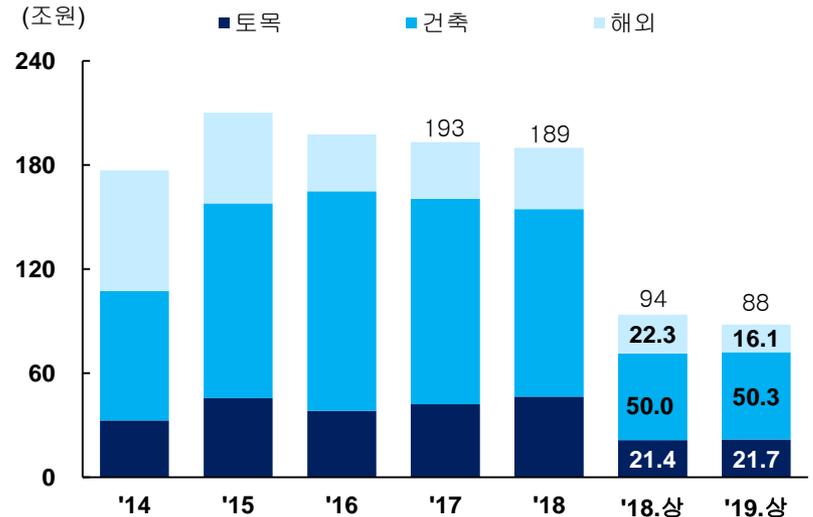
- (건설수주) 공공지출 확대로 토목공사가 증가하고 재건축·재개발 중심의 민간건축이 소폭 확대
  - (건설기성) 공공과 민간 모두 부진해 전체 건설기성은 감소세 지속
- ※ 건설기성(조원) : 102.6('15) → 120.0('16) → 139.0('17) → 137.0('18) → 68.0('18.上) → 64.7('19.上)

< 아파트매매가격 지수 >



주 : 지방권은 서울 및 수도권 제외, 자료 : 한국감정원

< 건설수주 >



자료 : 통계청, 해외건설협회

# 8. 건설 [이슈]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른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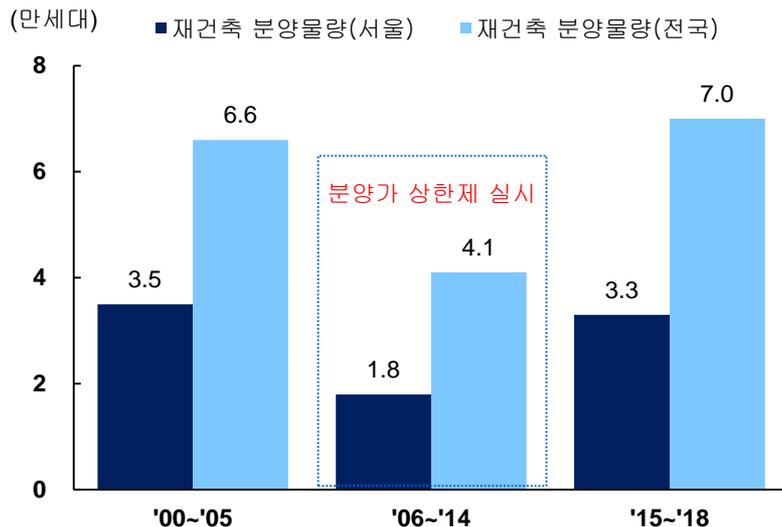
## 강남 등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 예정

- (개정) 투기지역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최대 10년간 전매금지, 기존 재건축도 일부 적용
  - (과거경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후 주택공급은 줄고 가격은 안정, 폐지후 주택공급과 가격은 상승
- ※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06~'14년에 실시한 이후 재건축 분양물량 축소와 가격안정 효과를 일부 경험

## 단기적으로 분양가 하락으로 주택가격 안정화가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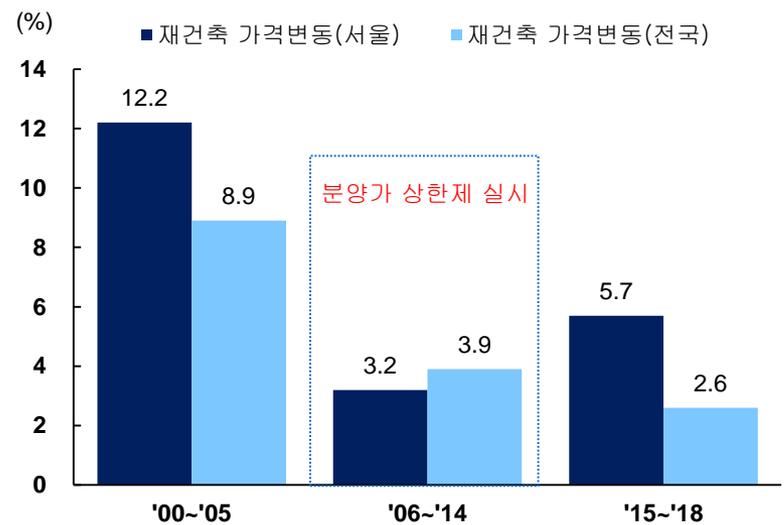
- 경기불안으로 시행 시점이 미정이나 일부 투기지역을 한정된 규제로 시행 가능성이 있음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20~30% 정도 저렴해져 신규분양 아파트로의 쏠림현상 가능
- 다만, 일부 지역별 주택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 가능성

< 재건축 분양물량 >



자료 : 부동산114

< 재건축 가격변동 >



자료 : KB부동산 통계

# 8. 건설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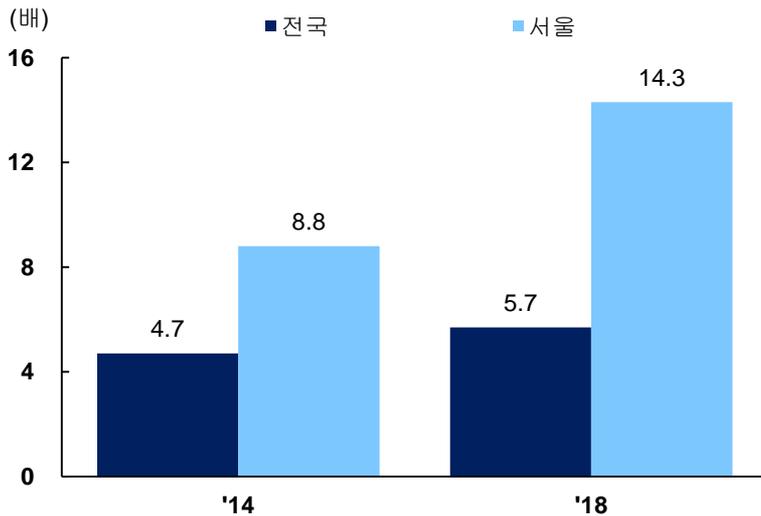
## 규제 강화에 따른 주택수요 하락압력과 공급위축 가능성으로 건설업황은 둔화 지속

- (주택수요) 주택구매여력이 낮아 투자수익 감소, 다주택자 부담, 미분양 및 경매 급증 등으로 하락압력 상존
  - ※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의 급등으로 인해 주택구매여력은 하락중
- (주택공급) 주택인허가와 주택착공이 모두 감소해 주거용 건축의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
  - ※ 건축인허가(만세대) : 26.4('17) → 27.1('18) → 13.8('19.1~7), 건축착공(만세대) : 20.9('17) → 21.6('18) → 11.4('19.1~7)

## 다만, SOC 투자와 해외수주 확대에 따른 토목과 플랜트 부문은 다소 양호할 전망

- 토목공사는 SOC예산안이 '19년(19.8조원)대비 2.5조원 증가한 22.3조원으로 대폭 증액돼 확대 예상
- 해외수주는 중동·아프리카 지역내 LNG액화플랜트 건설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IEA)돼 일부 회복

<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



자료 : KB부동산 통계

< 국토부 SOC 관련 예산(案) >

(조원)	'19년 (A)	'20년(e) (B)	증감 (B-A)	증가율 (%)
전 체	43.2	49.8	6.6	15.2
교통 및 물류	15.7	18.0	2.2	19.5
국토 및 지역개발	2.9	2.6	△0.3	△9.8
사회복지	1.8	1.8	0.0	△2.0
기금	25.6	30.0	4.4	17.0

주 :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 국토교통부

## 9. 콘텐츠

- (현황) 안정적 성장세 → (전망) 성장동력 유지

# 9. 콘텐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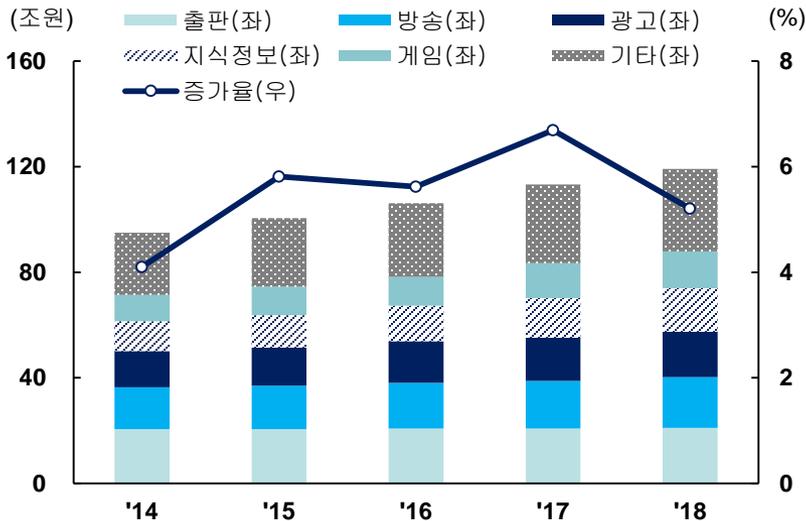
## (시장규모) 애니메이션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증가하며 국내 콘텐츠시장 규모는 지속 성장

- 콘텐츠산업\* 매출은 전년대비 5.2% 증가한 119.1조원을 기록('18년기준)
- \* 게임, 출판, 만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등 11개 업종
- ※ 콘텐츠 업종별 매출비중(%) : 출판(17.7), 방송(16.1), 광고(14.5), 지식정보(13.9), 게임(11.7), 캐릭터(10.3), 음악(5.5) 순
- 음악 및 지식정보 분야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출판 분야는 성장이 정체

## (수출) K-Pop, 드라마 등 한류 문화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안정적인 수출 성장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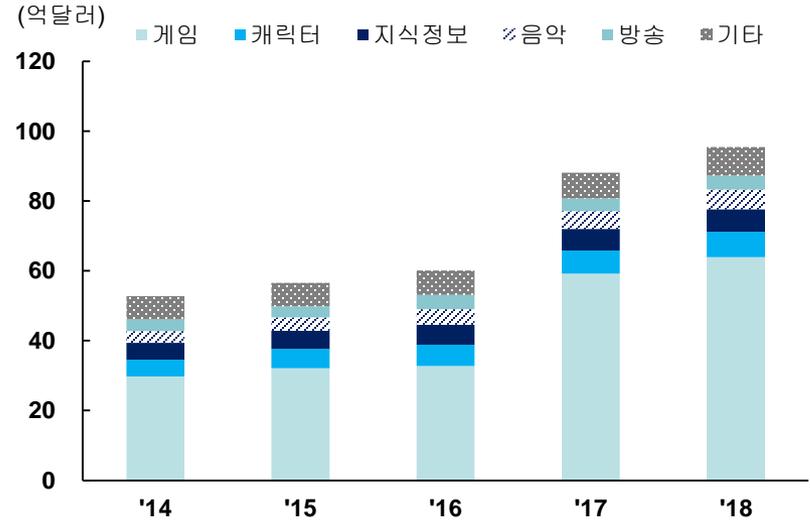
- 전분야에서 수출이 증가했으며, 특히 음악 및 캐릭터 분야에서의 성장세가 돋보임('18년기준)
- 다만, 전체 수출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게임은 중국의 판권발급 제한이 지속되며 수출 증가세가 둔화

< 콘텐츠 매출 >



주 : 전년대비, 기타는 하위 6개 분야 합산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 콘텐츠 수출 >



주 : 전년대비, 기타는 하위 6개 분야 합산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 9. 콘텐츠 [이슈] : 경쟁 속에서 성장하는 한국 콘텐츠

## 국내 OTT\*시장은 넷플릭스를 필두로 애플, 디즈니 등도 진입하며, 주도권 경쟁이 심화

\* Over The Top의 줄임말로 인터넷을 통해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 글로벌 OTT사업자는 한류를 이용해 아시아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어,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넷플릭스 점유율은 9%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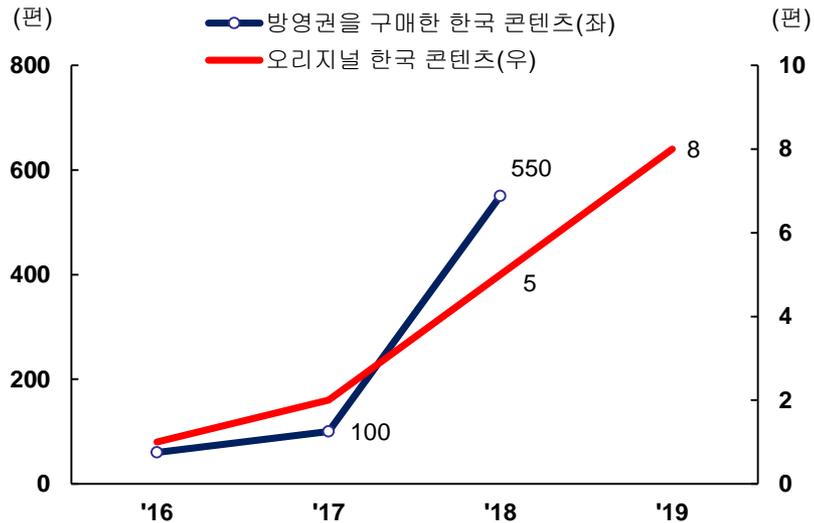
- 국내 OTT시장도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 대비, 주요 사업자간 합병이 가속화되는 양상

※ 웨이브('19.9월 출범) : 폭(지상파) + 옥수수(SK텔레콤), JV('19.9월 MOU체결) : 티빙(CJ ENM) + JTBC

## OTT기업의 콘텐츠에 대한 경쟁적 투자로 한국 콘텐츠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

- 중소형 콘텐츠 제작업체에게는 글로벌 유통망 확보, 방송사와의 협상력 증대 등의 기회요인으로 작용

### < 넷플릭스의 국내 콘텐츠 투자 >



주 : '19년도는 서비스 예정 포함, 자료 : 언론 보도자료

### < OTT시장 신규 참여 기업 현황 >

분야	주요내용
디즈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SPN+와 Fox社를 인수, 자체 OTT플랫폼 출시</li> <li>- 강점 : 전세계 애니메이션과 영화속 캐릭터IP 대부분을 독점 소유</li> </ul>
애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플뮤직, 애플TV+를 론칭('19년 하반기 예정)</li> <li>- 강점 : 충성심이 높은 아이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정된 구독자 수 확보 가능</li> </ul>
아마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2위의 OTT플랫폼 '아마존 프라임' 보유</li> <li>- 강점 :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작</li> </ul>
페이스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세계 이용자를 이어주는 페이스북 위치 보유</li> <li>- 강점 : 많은 이용자 수를 바탕으로 성공한 페이스북 메신저 성공 경험</li> </ul>

자료 : 언론 보도자료

# 9. 콘텐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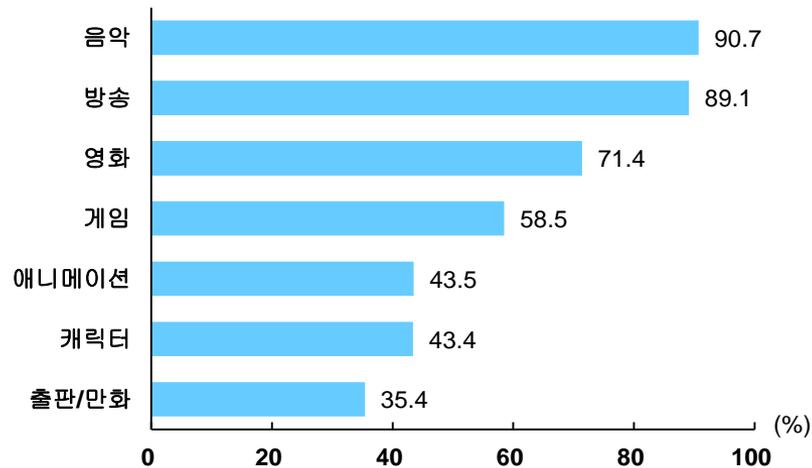
## OTT시장 활성화로 콘텐츠 수출이 증가, 5G 보급으로 게임 및 영상 분야 등이 성장

- OTT가 한류를 가속화시켜, 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음악, 방송, 영화 등)를 중심으로 성장 예상
- 5G 환경에서만 가능한 클라우드 게임, VR/AR 기반 게임 출시로 게임산업의 생태계 확대

## 정부, 민간의 콘텐츠 투자확대로 성장동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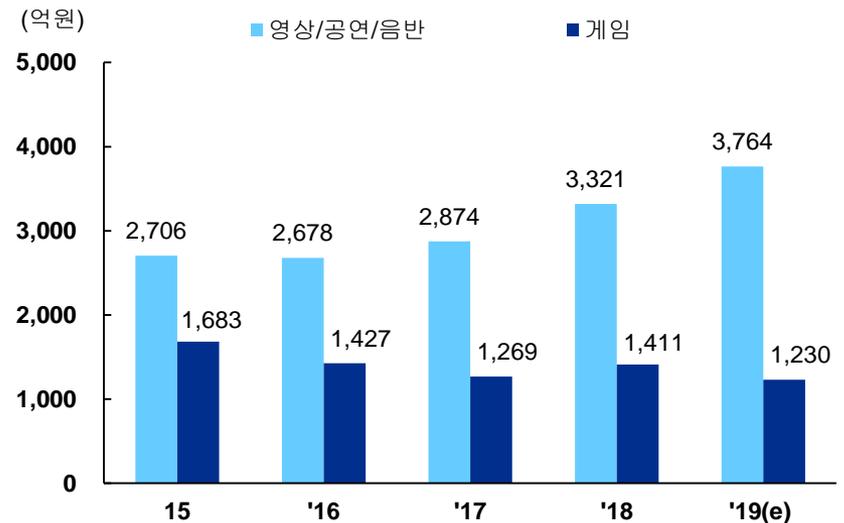
- 정부는 ①정책금융 확충(콘텐츠 모험투자펀드 신설, 콘텐츠 기업보증 확대), ②실감콘텐츠(가상의 물체를 실제처럼 조작) 육성, ③콘텐츠 수출 및 한류마케팅 지원 등 '20년부터 3년간 1조원 이상 자금공급 예정
- 정부의 실감콘텐츠 육성안으로 민간에서 다소 저조했던 게임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
- 고품질 콘텐츠 선점을 위한 투자자들의 경쟁심화로 콘텐츠 제작사의 시장영향력 증가

< 문화콘텐츠 한류영향계수 >



주 : 한류영향계수는 한류가 문화콘텐츠 수출에 미친 추정비율  
 자료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벤처캐피탈 콘텐츠 투자 >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10. 바이오

- (현황) 수출·투자 확대 → (전망) 외형 성장

# 10. 바이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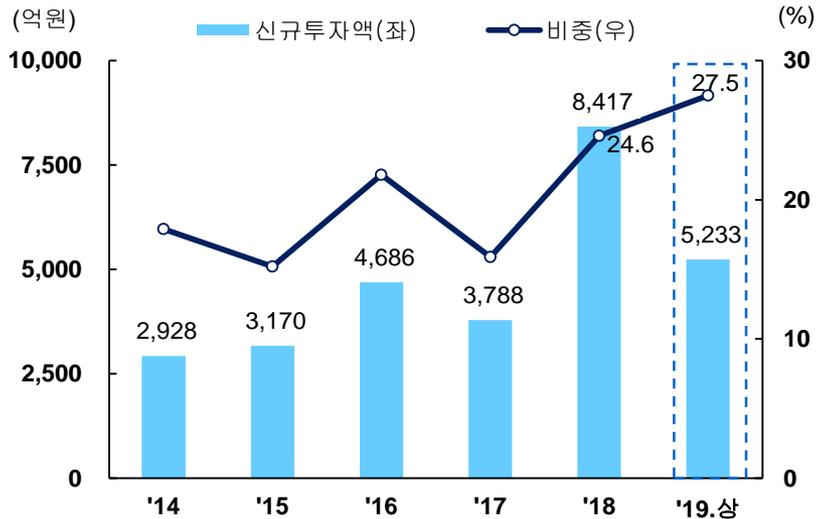
## 연이은 악재로 인한 신뢰성 훼손에도 불구하고, 신규투자가 확대되며 전년동기대비 26.4% 증가

- 잠재매출 기준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던 기술들의 라이선스 수출반환과 임상실패로 신뢰도 하락
  - ※ 한미약품(기술계약 반환), 인보사(품목허가 취소), 펙사백(임상시험 중단권고), 리보세라닙(임상3상 목표치 미달) 등
- 신약기술 수출은 5조 816억원('18년)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400% 이상 증가(최근 5년간 100배 성장)

## 바이오시밀러가 바이오산업 성장을 견인하여 의약품 수출이 16% 증가('19.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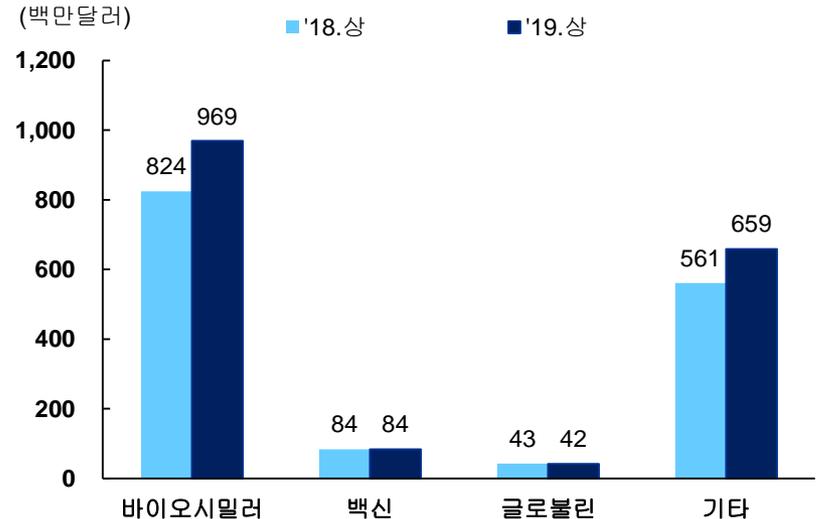
- 바이오시밀러 수출액은 9.7억달러 기록, 상반기 의약품 수출액 중 55.2% 해당(전년동기대비 17.6% 증가)
- 특히 만료되는 바이오신약 부문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투자확대('19년 바이오시밀러 시장규모 240억달러 추정)
  - ※ 바이오의약품 특허종료 현황('19.下~'20.上) : 허셉틴(유방암치료제), 아바스틴(황반변성치료제), 루센티스(황반변성치료제)

### < 바이오산업 신규벤처투자 규모 및 비중 >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 의약품 수출 >



주 : 바이오시밀러는 HSK3002149000, 3002150000의 합계  
 자료 : 한국무역협회

# 10. 바이오 [이슈] : 성장통을 앓는 K-바이오, 해법이 있을까?

## 2019년 기대한 6대 바이오 신약中 3건이 임상 3상 단계에서 무산, 경험 및 역량 부족에 기인

- 신약개발 성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임상 3상 단계, 임상시험수탁(CRO) 시장중 21.2% 해당
- 리보세라닙(위암치료제, 에이치엘비) 3상 목표치 미달, 펙사벡(간암치료제, 신라젠) 3상 중단
- 엔젠시스(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헬릭스미스) 3상 임상中 약물 혼용가능성 발견

※ 인보사(골관절염치료제, 코오롱티슈진) 주성분 임의변경, 6월 허가취소 및 상장폐지 절차 진행중

## 하지만 유망한 신약 파이프라인이 다수 존재, 자정노력과 자체역량을 강화하며 신뢰회복 노력중

- 신뢰 상실로 인한 투자위축을 우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자발적인 경계와 감독체계를 마련
- 글로벌 대형제약사와의 공동 임상시험 진행도 대안, 기술수출 또는 M&A를 통한 약점 보완

### < 임상시험 단계별 목적 >

단계	대상환자 수	내용
1상	20~100명 이하	약물 또는 치료법의 부작용 규명, 용량범위 결정, 안정성 평가
2상	100~200명 이하	약물 또는 치료법의 효과검증, 안전성 관련 자료 탐색
3상	1,000~2,000명 (약물에 따라 상이)	유효성 확증, 부작용 관찰, 기존 치료법과의 비교 평가후 시판허가
4상	처방 대상자	시판후 조사, 장기간 대규모 추적 연구로 신약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 < 주요 신약개발 진행현황('19.下 이후) >

제품명(적응증)	내용	일정
롤론티스 (호중구감소증)	美FDA 신약허가 재신청	'19.Q3
레이저티닙(폐암)	임상 3상 개시	'19.Q3
세노바메이트(뇌전증)	美FDA 허가 신청	'19.Q4
HL036(안구건조증)	임상 3상 중간결과	'19.Q4
ISU304(혈우병)	임상 2b상 최종결과	'19.Q4
IVIG-SN(면역결핍증)	美FDA 허가 신청	'20.上

자료 : 업계자료

# 10. 바이오 [전망]

## 정부의 투자지지는 확고, 대기업 주도하에 개방형 혁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외형성장

- '25년까지 연간 4조원 규모의 투자, 年수출액 500억달러 달성 계획 발표('19.5월, 바이오헬스국가비전선포식)
  - ※ 보건복지부,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 해외 재단이 공동출자한 라이트펀드 '19년 68억원 투자, '22년까지 총 500억원 투자
- 美FDA의 규제 완화정책에 따른 신약기술의 매출 현실화 기간 단축('18년 역대 최대 신약승인, 59건)

## 유망시장에 대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아웃소싱 확대로 바이오서비스 시장은 꾸준히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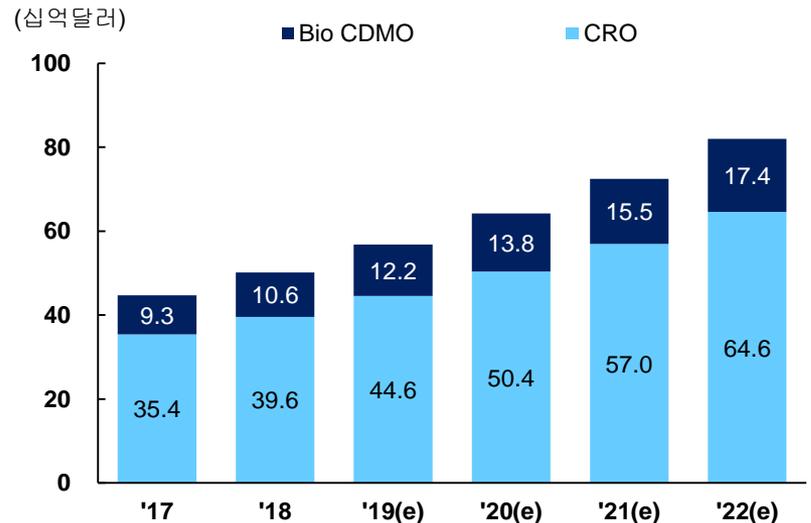
- CDMO(위탁개발 및 생산, CDO+CMO)시장은 연평균 12.9% 성장, 소규모 바이오벤처기업과 기술 공유
  - ※ 국내 신약개발전문 바이오벤처(NRDO) 10개 내외,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2상 개발까지 진행후 기술수출하는 전략
- CRO\*시장도 연평균 12.7% 성장, 생물제제·바이오시밀러 관련 R&D 증가 등으로 긍정적 영향
  - \* 임상시험수탁(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 임상시험 디자인, 업체선정, 진행 및 임상자료 관리작업 등 포함

### < 주요 바이오기업의 생산능력 및 투자 >

기업명	생산능력	투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1~3공장 36만리터, CMO 세계 1위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량의 12% 해당	'20년까지 CDO, CRO 파트너사 50개 확대 계획
셀트리온	1·2공장 14만리터 생산, 1공장 증설로 Q4부터 총 19만리터 규모 설비	국내 3공장 신설 및 中합작생산, 加신약공동개발
SK바이오텍	대전·세종 32만리터 생산, 해외 68만리터 확보	美에 CMO 통합법인 설립

자료 : 업계자료

### < 글로벌 바이오서비스 시장현황 및 전망 >



자료 : Frost & Sullivan

## Ⅲ. 중소기업

1. 중소기업 경기
2. 중소기업 금융
3. 중소기업 정책

# 1. 중소기업 경기

- (현황) 부진 심화 → (전망) 부진 지속

# 1. 중소기업 경기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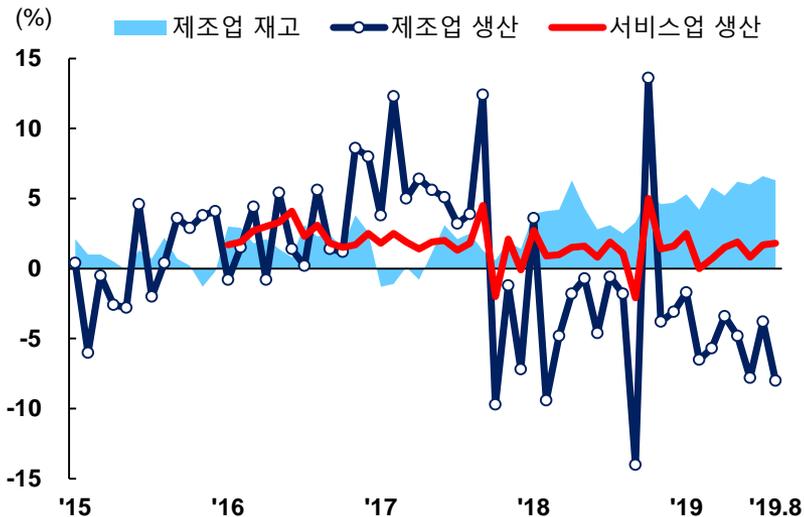
## (현황)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수출감소와 내수부진이 심화되며 감소폭이 확대

- 중소기업 최대 수출국인 중화권 국가\*의 경기둔화로 인한 수출감소와 국내 소매판매 부진이 주요인
  - ※ 중소기업 생산(전년동기대비, %) : 3.0('17) → △2.5('18) → △5.0('19.上) ※ 중소기업 수출(전년동기대비, %) : 3.7('17) → 1.9('18) → △2.7('19.上)
  - \* 중소기업 수출의 30% 차지('18년기준) ※ 중소기업 對중화권 국가(중국, 홍콩, 대만) 수출액(백만달러) : 16,180('18.上) → 14,461('19.上), △11.9%

## (전망) 일부 주요산업을 제외한 경기둔화 지속과 日수출규제 확대 우려까지 겹치며 생산 부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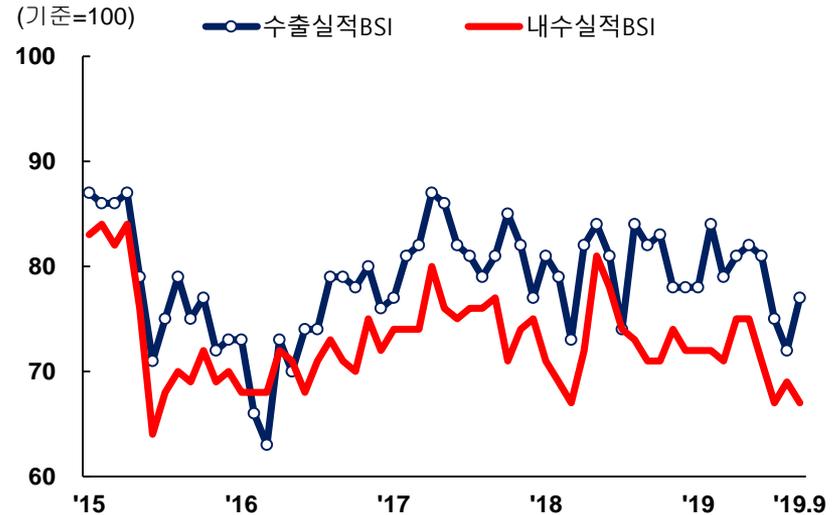
- 일부 주요산업\*의 경기는 미미하게 회복되나 중소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역부족
  - \* 자동차 산업은 SUV 및 친환경차 판매 개선, 조선 산업은 LNG선 수주 증가, 반도체 산업은 5G 확산 등
- 특히, 日수출규제로 인한 원자재 조달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악화時 생산차질은 불가피
  - ※ 중소기업의 對일본 수입의존도는 금속가공(36.1%), 자동차 부품(32.9%), 기계(28.2%) 順으로 現 규제품목이 속한 전자부품(15.3%) 대비 높은 수준

< 중소기업 생산 및 재고 >



주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 중소기업 수출실적BSI 및 내수실적BSI >



주 : 100 이상이 양호, 자료 : 한국은행

# 1. 중소기업 경기 [설비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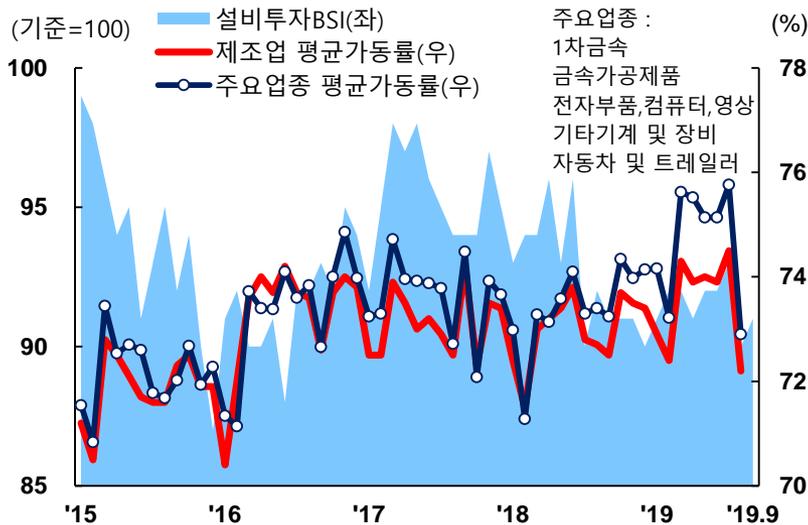
## (현황)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는 대기업과 달리 감소폭이 확대되며 부진이 심화

-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및 장기화되고 매출감소도 지속되며 투자심리 악화
  - ※ 설비투자 전망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 대기업  $\Delta 20.7('18) \rightarrow 2.7('19)$ , 중소기업  $\Delta 5.1('18) \rightarrow \Delta 21.4('19)$
  - ※ 매출실적BSI(기준=100) : 대기업  $87('18.9) \rightarrow 86('19.9)$ , 중소기업  $74('18.9) \rightarrow 68('19.9)$

## (전망) 보수적인 투자심리 지속으로 노후설비 교체를 제외한 전반적인 투자는 부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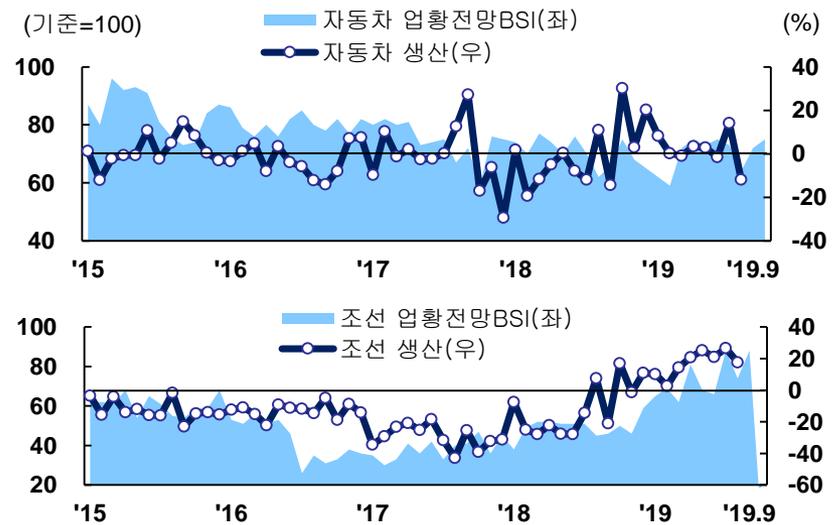
- 노후설비 교체 압력이 강한 일부 중소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투자가 제한될 가능성
- 경기부진 및 글로벌 불확실성 우려 지속에 따른 전반적인 투자심리 위축 심화
  - ※ 중소기업 가동률(%): 제조업 평균  $72.5('17.8) \rightarrow 72.7('18.8) \rightarrow 72.2('19.8)$ , 주요업종 평균  $72.7('17.8) \rightarrow 73.4('18.8) \rightarrow 72.9('19.8)$

< 중소기업 설비투자실적BSI 및 가동률 >



주 : 주요업종은 중소제조업 설비투자액 상위 업종('18년기준)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한국은행

< 자동차·조선 생산 및 업황전망BSI >



주 :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BSI는 100 이상이면 양호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 1. 중소기업 경기 [자금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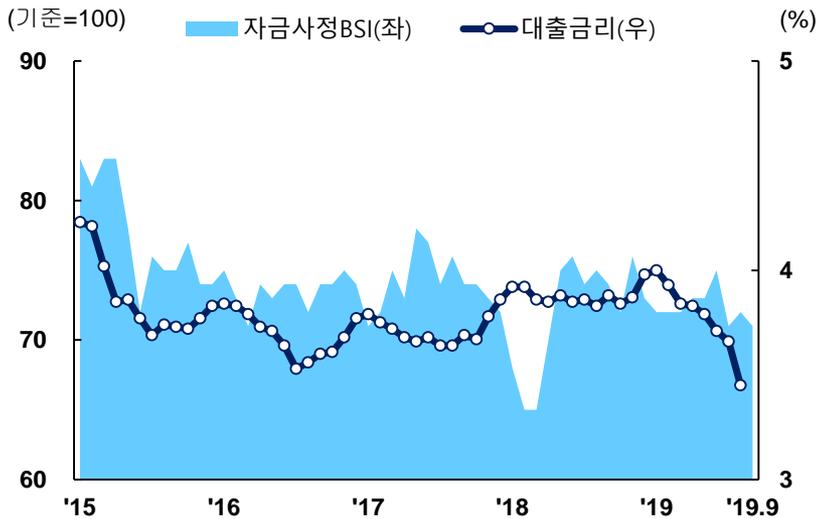
## (현황) 우호적 자금조달 환경이 인건비 상승·경기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를 일부 상쇄

- '19년 하반기 자금사정이 곤란한 가장 큰 원인은 ①인건비 상승 ②판매부진 ③판매대금 회수지연 順
- ※ 중소기업 자금사정 곤란 응답비율(%) : 46.0('17.8) → 51.9('18.8) → 55.0('19.8)
- 경영애로 자금지원·대출금리 하락은 어려운 경영여건 속 단비 역할(소상공인, 日수출규제 피해기업 등)

## (전망) 경영악화 위험 및 운영비 부담에도 정책자금 공급 확대로 전년수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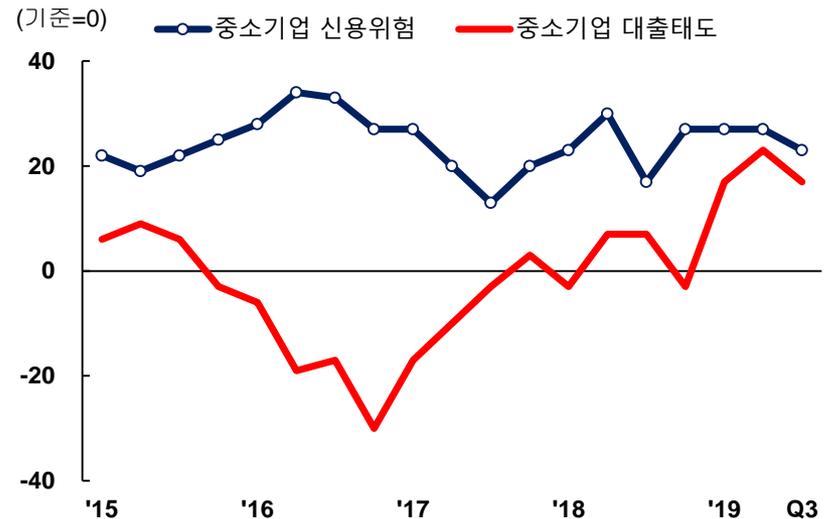
- 최저임금 인상 및 차입금(대출) 확대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로 자금사정 악화 가능성
- ※ 최저임금 시급과 인상률(원, %) : 6,030, 8.0('16) → 6,470, 7.3('17) → 7,530, 16.4('18) → 8,350, 10.9('19) → 8,590, 2.9('20)
- 정책자금 확대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태도 완화(예대출 규제, 생산적금융 등)로 자금조달 환경은 양호

< 중소기업 자금사정BSI 및 대출금리 >



주 :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신규 취급기준, 자료 : 한국은행

< 중소기업 신용위험 및 대출태도 >



주 : 대출태도는 '강화<0<완화', 자료 : 한국은행

# 1. 중소기업 경기 [자영업자 · 소상공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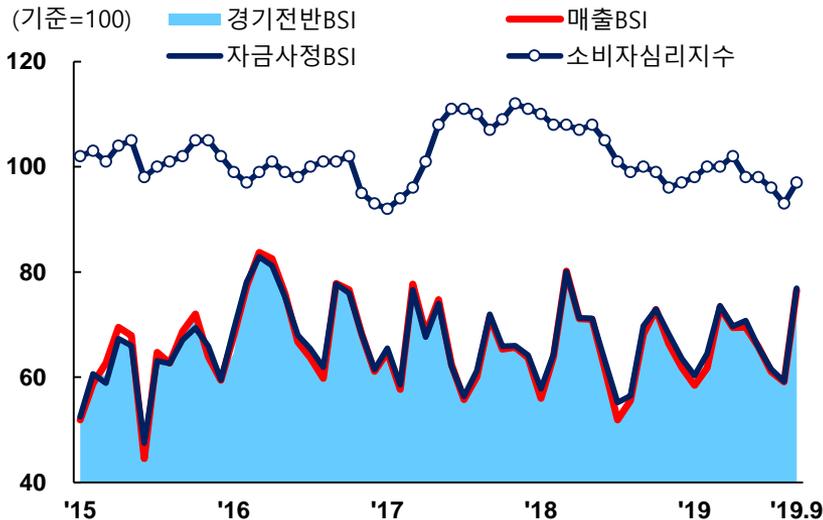
## (현황) 매출감소와 인건비·임대료 상승 등 경영비용 증가 겹치며 체감경기 부진이 지속

- 소비심리 악화에 따른 매출감소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임대료 상승 등 경영악화 요인 산재
  - ※ 소비자심리지수(기준=100) : 111('17.12) ⇒ 97('18.12) ⇒ 100('19.3) ⇒ 98(6) ⇒ 97(9)
  - ※ 소매판매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 4.5('16.上) → 3.3('17.上) → 6.0('18.上) → 1.5('19.上)

## (전망) 내수부진에 매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금융비용 증가까지 겹치며 부진이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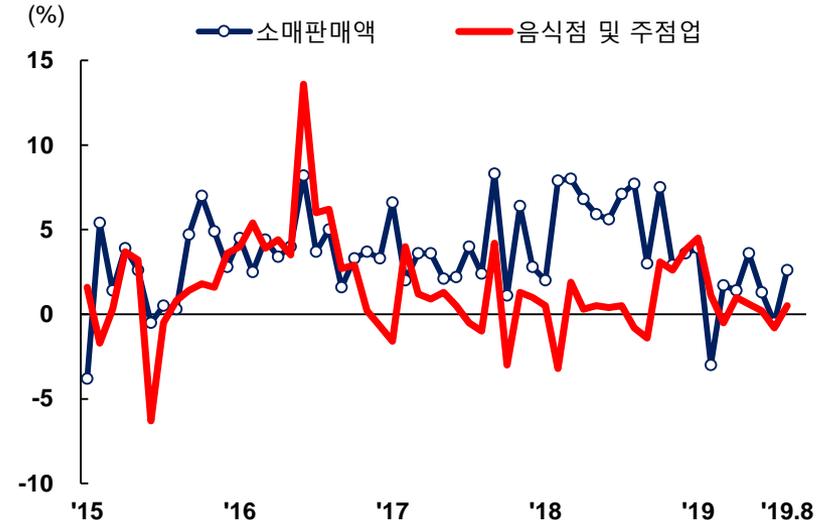
- 비은행권 대출로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며 경영난 가중 우려
  - ※ 비은행권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업 대출금 순증액(조원) : 5.9('16) → 6.9('17) → 9.2('18) → 6.2('19.上)
  - ※ 금융비용/매출액비율(%) : 도소매업 0.59('18.Q2) → 0.64('19.Q2), 숙박음식업 2.20('18.Q2) → 2.48('19.Q2)

### < 소상공인 체감BSI 및 소비자심리지수 >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은행

### < 소매 및 음식판매액지수 >



주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 1. 중소기업 경기 [이슈] : 글로벌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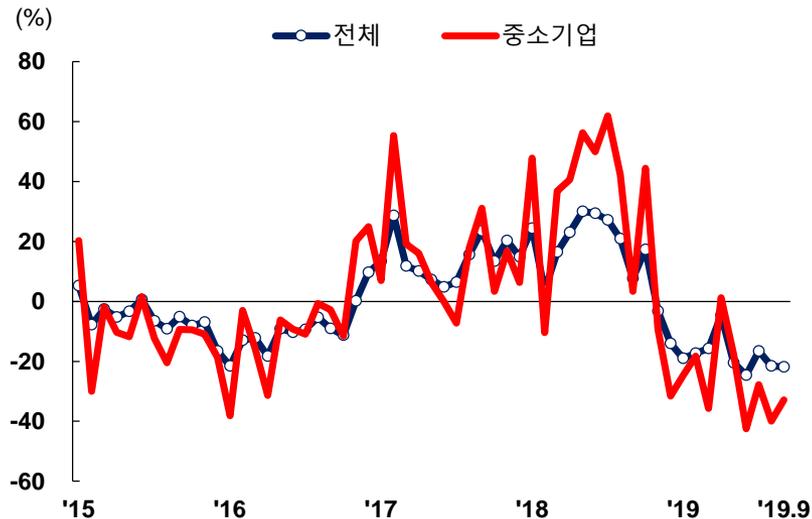
## 美中 무역분쟁, 日 수출규제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

- (美中 무역분쟁) '19년 상반기 중소기업의 對중국 수출은 6.5% 감소 ※ 한국의 對중국 수출비중은 약 25%
- (日 수출규제)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중소기업보다 중견기업에 큰 피해를 줄 가능성  
※ ICT기업의 對일본 전체 수입액 대비 규제품목 수입액 비중(%) : 중소기업 13.9 < 중견기업 62.8

## 불확실성이 장기화 되는 경우 수출감소 지속 및 ICT 이외의 산업으로 피해확대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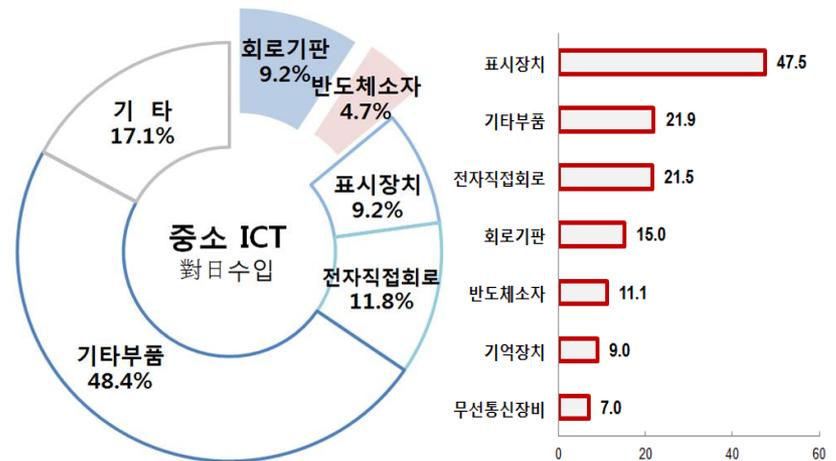
- 중소기업 중 對중국 수출감소 산업군\*, 對중국 수출 高의존도 기업군\*\*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부품관련 도매업 \*\* 연매출 5억원 이하 소규모 對중국 수출기업
- 日 수출규제 확대時 對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 자동차부품, 기계 산업 등에 악영향 불가피

< 對중국 총수출 vs 중소기업 수출 >



주 : 전년동월대비, 자료 : 관세청,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 ICT 對일본 수입비중 및 의존도 >



주 : IBK거래기업 중 ICT 제조업 영위 911개사  
자료 : IBK경제연구소

## 2. 중소기업 금융

- (현황) 中企대출 순증 확대 → (전망) 증가세 유지

## 2. 중소기업 금융 - 대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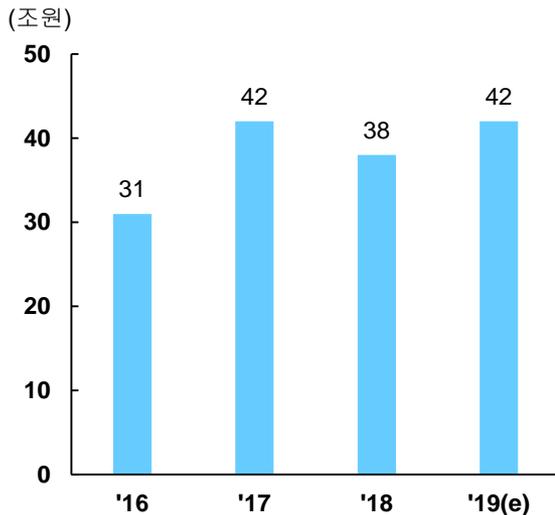
### 2019년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순증은 2018년(37.6조원)보다 4조원 증가한 42조원 예상

- (잔액) '19년말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전년(669.4조원)대비 6.3% 증가한 711.4조원으로 예상
- (특징) 2분기 순증 급증후 둔화 ※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  $\Delta 0.9$ ('19.Q1)  $\rightarrow 69.3$ ('19.Q2)  $\rightarrow \Delta 7.6$ ('19.Q3)

### 예대출 규제, 정책지원 확대 및 금리인하 등이 중소기업대출 순증규모 확대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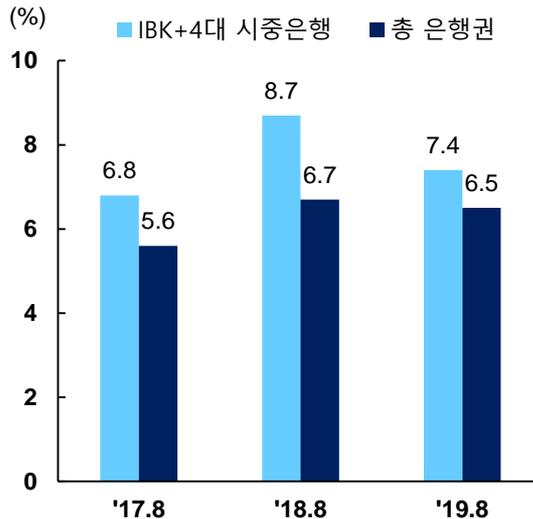
- 예대출 규제('20.1월 시행)에 대비한 시중은행의 우량 중소기업 先 확보 경쟁으로 대출공급 증가  
 ※ 예대출 산정時 가계대출 가중치는 상향(+15%p), 기업대출 가중치는 하향( $\Delta 15$ p)
- (기타요인) 기술금융 등 혁신중소기업 지원노력 지속, 기준금리 인하 및 금융중개지원대출 공급증가  
 ※ 기술금융 순증(조원) : 34.8('17)  $\rightarrow 36.0$ ('18)  $\rightarrow 18.2$ ('19.上) ※ 금융중개지원대출 추가공급(5조원, 지원금리 0.5%)

< 은행권 중기대출 순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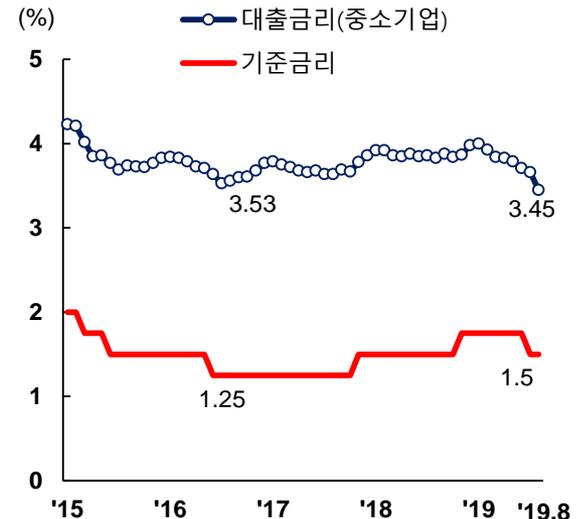
주 : 원화대출금 연말기준  
 자료 : 한국은행, IBK경제연구소

< 은행권 중기대출 증가율 >



주 : 전년동월누계대비  
 자료 : IBK기업고객부, 한국은행

< 금리 동향 >



주 : 신규취급액기준  
 자료 : 한국은행

## 2. 중소기업 금융 [이슈] : 시설자금대출 수요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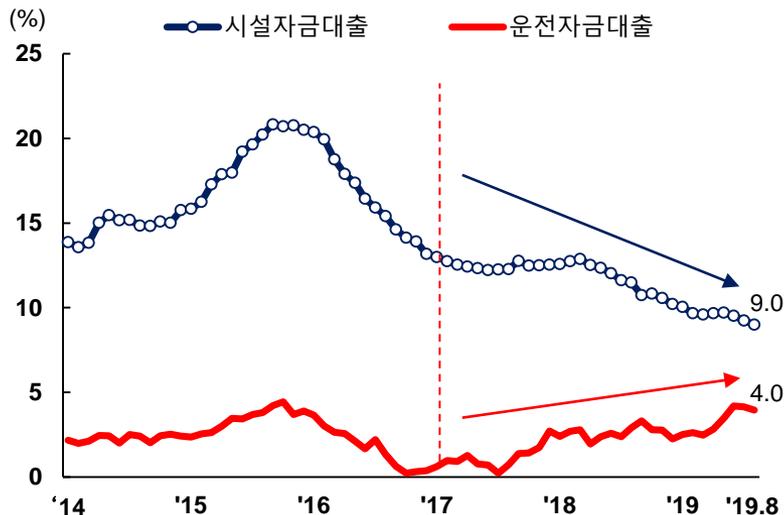
### (현황)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시설자금대출 증가세 둔화가 지속

- '19년 들어 시설자금대출 증가율은 한 자리 수로 감소
  - ※ 중소기업 시설자금대출 증가율(% , 전년동월대비) : 12.3('17.8) → 11.5('18.8) → 9.0('19.8)
- 반면, 운전자금대출은 증가세가 지속되며 시설자금대출 증가율과 상반된 움직임
  - ※ 시설자금대출과 운전자금대출 증가율間 상관계수 : 0.89('15.1~'17.12) → 0.19('16.1~'18.12) →  $\Delta$ 0.78('16.9~'19.8)
- 투자를 통한 수익 증대보다 기업을 유지·존속하기 위한 불황형 대출수요가 우세한 것으로 판단

### (전망) 경기부양책은 대출확대의 긍정요인이나, 투자수요 회복으로 연결될지 여부가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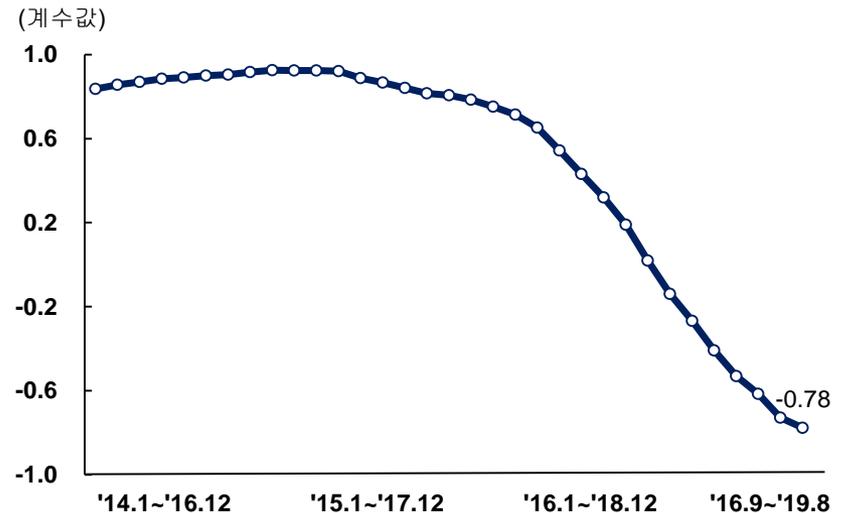
- 美中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들이 투자심리 회복을 제한할 가능성

< 중소기업 시설 및 운전자금대출 >



주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한국은행

< 시설 및 운전자금대출 증가율間 상관계수 >



주 : 3년 단위로 계산, 자료 : IBK경제연구소

# 2. 중소기업 금융 [이슈] : 중소기업대출 건전성 악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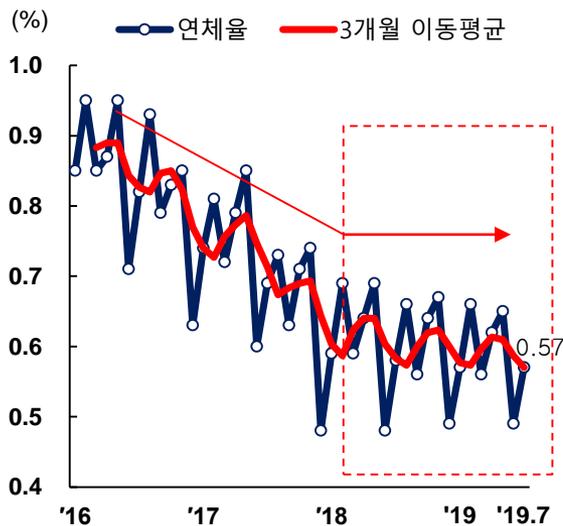
## 경기부진에도 중소기업대출의 연체율은 낮은 수준으로 표면적인 대출건전성은 양호

- '19.7월기준 중소기업대출의 연체율은 0.57%로 장기평균(0.77%)을 하회(전년동월대비 0.01%p 감소)
- ※ 중소기업 연체율의 장기평균은 '11~'18년까지 기간에 대하여 각 연도말 연체율을 단순 평균하여 계산

## 하지만 경영난 악화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향후 건전성 악화 및 총당금 부담 가중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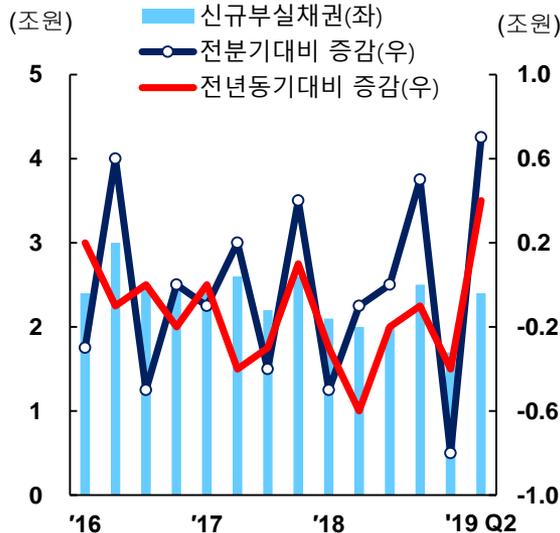
- '19.2분기기준 중소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은 모두 전년동기대비 하락
- \* 매출액(%) : 5.5('17.Q2) → 5.7('18.Q2) → △0.6('19.Q2) \*\* 매출액영업이익률(%) : 7.1('17.Q2) → 7.3('18.Q2) → 6.3('19.Q2)
-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2.4조원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전분기대비 0.7조원, 전년동기대비 0.4조원 증가)
- 추세적으로 중소기업대출의 연체율\* 감소세는 둔화되었으며 개인사업자대출의 연체율\*\*은 상승세
- \*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 0.69('17.7) → 0.58('18.7) → 0.57('19.7) \*\*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 0.36('17.7) → 0.33('18.7) → 0.36('19.7)

<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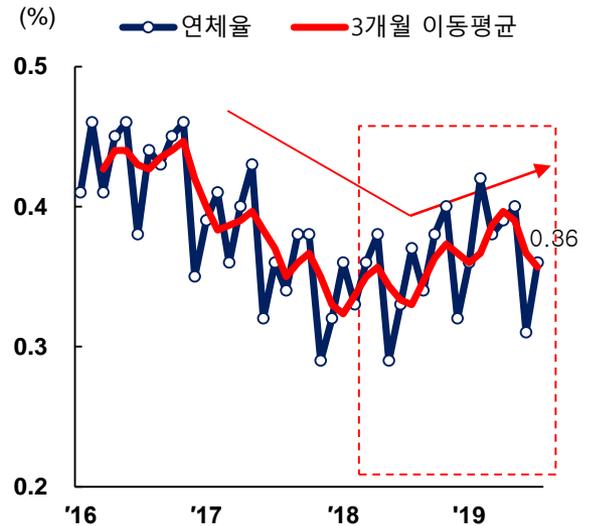
주 : 원화대출금,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 중소기업 신규부실채권 >



자료 : 금융감독원

<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



주 : 원화대출금,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 2. 중소기업 금융 - 대출 [전망]

### (증가요인) 저금리 기초, 과감한 정부지원 등 정책효과가 대출공급을 주도

- (공급) 저금리 기초 지속 및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으로 인한 공급증가
- (수요) 신차출시, 선박수주 확대 등 주요 제조업 경기회복세에 따른 일부 낙수효과

※ 정부주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혁신금융 추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등

### (제약요인)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심리 지연 및 은행권의 건전성 관리 강화

- (공급) 경기부진에도 '19년 중소기업대출을 대폭 확대한 은행권의 부실위험 관리 필요성
- (수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美中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심화

※ 중소기업 전망BSI(기준=100) : 업황 70('17.10) → 73('18.10) → 68('19.10), 설비투자 93('17.10) → 91('18.10) → 91('19.10)

#### < 정부주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19.3월 발표)	취지 : 전통제조, 주력산업의 선진화 규모 : 3년간 정책자금 12.5조원 공급
서비스 산업 혁신지원 ('19.3월 발표)	취지 : 유망서비스 육성, 新서비스 창출 규모 : 5년간 정책자금 60조원 공급
혁신금융 ('19.3월 발표)	취지 : 대출관행, 심사시스템 혁신 규모 : 3년간 동산담보 6조원, 기술금융 90조원, 성장기반대출 4조원 공급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19.8월 발표)	취지 : 日 수출규제 피해구제, 국산화 지원 규모 : '19년 하반기 이후 특별자금 6조원 + α

자료 : 금융위원회 외

#### < 중소기업 업황 및 설비투자 전망BSI >



주 : 100 이상이면 양호, 자료 : 한국은행

### 3. 중소기업 정책

- (총예산) 중기부 13.5조원 예산안('20) 편성
- (주요사업①) 창업·벤처기업의 도약과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화
- (주요사업②)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국산화 및 해외시장 진출 적극 지원

### 3. 중소기업 정책 [총예산(案) 및 자금지원]

#### 중기부는 2020년 13.5조원 예산(案) 편성, 역대 최대규모로 전년대비 31.1%(3.2조원) 증가

※ 예산(조원) : 8.9('18) → 10.3('19) → 13.5('20)

- 용자, 보증출연 등 자금지원(+1.6조원) 및 창업·벤처(+0.9조원) 분야에서 가장 크게 증가
- 중소기업 미래성장(+0.5조원) 및 균형적인 경제성장 지원(+0.3조원), 다수출규제 대응(+0.2조원) 등 증가

※ 소상공인(△300억원) 분야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지방이양으로 중기부 예산(안)에서는 감액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용자와 보증을 총 10.0조원 확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9조원)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3조원)을 통한 용자예산 1.2조원 증액
- 신보, 기보, 지역신보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0.4조원 증액하여 보증규모가 8.8조원 증액 예상

#### < 2020년 중기부 예산(案) 분야별 현황 >

(억원)	'19년 (A)	'20년 (B)	증감 (B-A)
제조혁신 및 기술역량 강화	14,173	19,150	4,977
창업·벤처기업의 도약 지원	9,162	18,081	8,919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경) 717	2,586	1,869
소상공인·자영업자 활성화	7,269	6,969	△300
지역경제 및 일자리 지원 (규제자유특구 : 부산, 대구, 세종, 강원, 충북, 경북, 전남)	4,875 (328)	7,532 (615)	2,657 (287)
시장개척 및 판로지원	2,231	2,278	47
자금지원	61,552	77,553	16,001
기타	3,402	3,331	△70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 < 정부출연금 증액에 따른 보증규모 확대 >

정부출연금			보증공급		
(억원)	'19년	'20년	(조원)	'19년	'20년
신보	910	2,700	신보	0.9	3.4
기보	630	1,700	기보	0.8	2.1
지역신보	319	1,011	지역신보 (보증잔액 기준)	20.5	25.5
합계	1,859	5,411	합계	22.2	31.0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 3. 중소기업 정책 [주요사업①]

#### 창업·벤처기업의 도약 지원확대로 양적성장 지원뿐만 아니라 질적성장 지원 강화

- 3~7년차 창업기업의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을 위한 마케팅 등 지원사업 증액 및 예비 유니콘 육성
  - 모태펀드를 확대하여 창업(0.3조원) 뿐만 아니라 창업·벤처기업의 스케일업(0.3조원) 지원
- ※ '창업·벤처기업의 도약 지원' 분야 예산(조원) : 0.9('19) → 1.8('20)

####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화 예산집중 및 신규편성으로 4차 산업혁명 국가적 대응 본격화

- 제조 데이터센터 구축, 스마트전략 확산, 미래분야 R&D 신설 등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화 추진
  - 세계 최강의 DNA(Data, Network, AI) Korea 구축을 위해 제조혁신과 기술개발 지원예산을 대폭 반영
- ※ '제조혁신 및 기술역량 강화' 분야 예산(조원) : 1.4('19) → 1.9('20)

#### < 창업·벤처기업의 도약 지원 주요내용 >

구분	주요 내용
기술 창업 활성화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창업자에게 최대 1억원 지원 프로그램 증액</li> <li>• 3대 혁신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창업 패키지 및 멘토단 신설</li> <li>• TIPS 및 사내벤처 등 민관협력 방식의 창업자 육성 프로그램 확대</li> </ul>
모태펀드 출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케일업 펀드, 일본 수출규제 대응, 3대 혁신 분야 창업 지원 등</li> <li>• 다양한 형태 모태조합 출자내용 반영</li> </ul>
창업기업의 Scale-up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증액</li> <li>• 예비 유니콘 육성 지원프로그램 신설</li> </ul>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 < 주요 중소·벤처기업 스마트화 예산(案) >

(억원)	'19년 (A)	'20년 (B)	증감 (B-A)
스마트공장 보급	3,125	4,150	1,025
스마트 마이스터	20	77	57
제조 데이터센터 구축	-	67	67
스마트 서비스	-	93	93
스마트 상점	-	21	21
미래분야 R&D	-	503	503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 3. 중소기업 정책 [주요사업②]

####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국산화 및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적극지원 강조

-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증대 및 지원 다양화
  - ※ 정부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예산(조원) : 0.8('19) → 2.1('20)
- 新남방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국 중소기업 제품 공동 브랜드인 '브랜드 K(Brand K)' 개발 및 홍보
  - ※ 태국에서 K-뷰티, 생활용품 등의 '브랜드 K 런칭쇼' 개최 및 '중소기업 브랜드 K 판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19.9.2일)

####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지원 강화 및 금융회사 면책제도 개편방안 추진

-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조달 지원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회복 뒷받침
- 혁신성장 지원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및 임직원 면책제도 개편방안' 발표 예정('19.10.4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 <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 주요사업 >

(억원)	'19년 (A)	'20년 (B)	증감 (B-A)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2,360	6,027	3,667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641	1,834	1,193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	476	920	444
소재부품미래성장동력	632	1,457	825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지원	-	25	25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 혁신·포용 금융 주요사업 >

종류	주요내용	(출자 대상) 금액
혁신모험펀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을 위한 혁신모험펀드 조성	(산업은행) 3,000억원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스마트화, 신산업 등에 대비한 중소·중견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 및 산업 생태계 역동성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 지원	(IBK기업은행) 480억원 (산업은행) 880억원
동산담보 회수 지원기구 설치	동산담보의 적시 환가처분을 보장하여 공급 활성화 유도	(자산관리공사) 500억원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	(IBK기업은행) 2,400억원

자료 : 금융위원회

※ 본 책자 내용과 관련한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은 IBK경제연구소로 연락바랍니다.

**경제  
부문** 이택근 팀장  
(☎8-6252)

유로존, 세계경제	: 류동석
미국	: 김상유
중국, 국제유가	: 김성민
일본	: 박선후
新남방, 금융시장	: 김경훈
국내경제	: 곽동철

**산업  
부문** 이동현 팀장  
(☎8-6891)

반도체	: 장우애	석유화학	: 김대영
해운·조선	: 전준모	도소매	: 정지은
자동차	: 김대영	건설	: 전준모
디스플레이	: 장우애	콘텐츠	: 황준성
철강	: 황준성	바이오	: 정지은

**중소  
기업** 이성룡 팀장  
(☎8-6898)

중소기업 경기	: 김기훈, 최재웅
중소기업 금융	: 박상민, 최정훈
중소기업 정책	: 김나라

**新북방** 이상엽 팀장  
(평화경제) (☎8-6899)

新북방	: 송재국
평화경제	: 정일영